

# 連記界

第四號

光復25周年紀念速記展示會特輯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 速記文字에 의한 초상화 (速記展示会 作品)

李孝祥국회의장 각하의 국회개회사를 속기문자화하여 각하의 초상화를 제작한 것입니다.

속기문자는 点, 線, 位置와 方向으로 이루어져 보통문자(한글 및 외국문자) 보다 유연하고 다양하기 까닭에 그 변화를 이용한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설문내용 : 제39회(6대국회 개원식)부터 제70회까지의 개회사.

연설문총자수 : 약 69,000자

제작기간 : 1970. 7. 1~1970. 8. 31. (2개월간)

제작자 : 蔡 康 熙(국회속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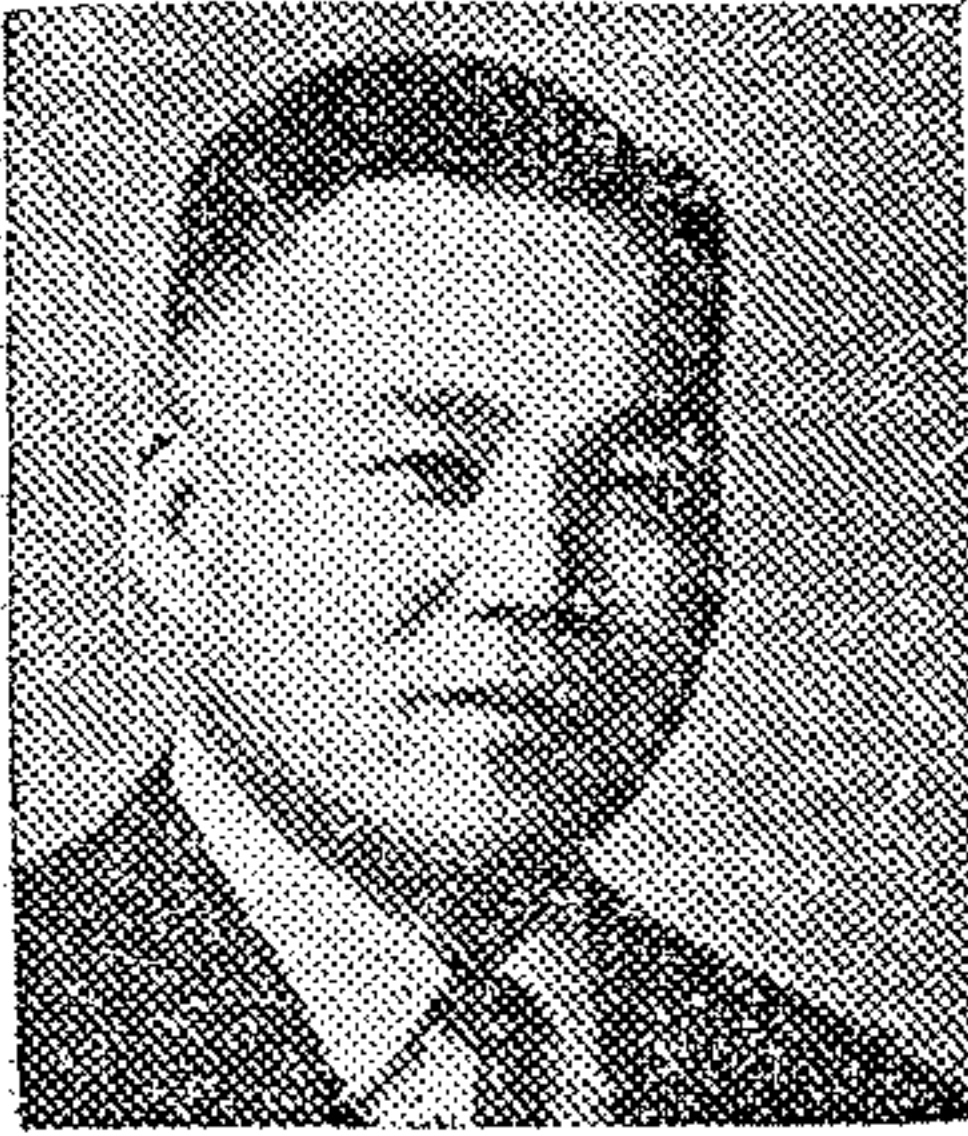
# 目 次

新 年 辭.....	會長 崔 致 煥...	2
어정 七月, 동동 八月.....	理事長 李 東 一...	3
實務面을 通해본 韓國速記發展史 (下) .....	金 鎮 基...	6
國政監査.....	全 海 成.....	12
<國監餘話>두 더 지.....	梁 源 龍.....	16
<座談>國政監査와 速記士.....		18
◇ 나의 速記活動(調達廳).....	金 中 衡.....	24
Computer 見學記 .....	姜 瑞 弘.....	27
<資料>Hansard (2) .....	楊 澈 在.....	29
◎ 特別寄稿		
外國速記界視察記 (下) .....	安 仁 榮.....	33
速記國人記 (下) .....	姜 駿 遠.....	38
光復25周年紀念速記展示會		
特 畫 報.....		47
輯 〓 <放談>展示會를 마치고 .....		53
會務日誌.....	總 務 部.....	42

表紙·金 鍾 壽      寫眞·金 善 弼

◇ 新年辭 ◇

## 보다 榮光을 위한 總力으로



會 長 崔 致 煥

希望에 찬 申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全國의 速記人에게 萬福이 깃들기를 바라는 인사를 드리며 韓國速記界의 앞날이 영광되기를 염원합니다.

全國의 速記人여러분 한국속기계의 역사가 역경과 고난을 헤쳐온 開拓者의 역사였으며 특히 지난해는 速記界에는 실로 다사다난한 해이었습니다.

韓國의 각분야가 도약의 70년대를 맞아 고도성장의 발판을 구축한 것과 마찬가지로 速記界 또한 장족의 발전을 위한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任意단체로 있던 大韓速記協會가 社團法人으로서 文化公報部의 認可를 得한 첫 事業年度인 지난해에 명실공히 한국 속기인 단결의 總和를 이루었고 速記의 大衆化를 이룩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政府補助金을 받음으로서 速記協會가 기획했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치었습니다.

年例事業인 無料速記講座를 계속 개최하여 속기인구의 저면확대와 속기의 생활화에 많은 成果를 올렸으며 第1回速記士資格檢定試驗을 시행함으로써 速記人 스스로의 資格向上을 기하였고 광복 25주년기념 速記展示會를 개최함으로써 非速記人의 속기인식을 넓히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를 돌아볼 때 수확을 전우는 農夫처럼 마음이 풍성합니다만 이러한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번영되고 영광된 내일을 建設하는데 總力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韓國速記界가 당면한 주요과제는 대외적으로 速記를 계속 보급 速記의 生活化 및 大衆化가 進一步되어져야 하겠고 대내적으로는 速記實務環境을 改善하고 速記士의 福祉向上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의 速記士가 外國과 비교해 불적에 낮은 報酬를 받고 있는것이 사실이며 이의 是正을 위해서는 手當引上 等を 통해 보다 現實的인 處遇改善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70년에 다 못한 이러한 과제를 成就시키는데 全速記人의 倍前의 노력과 단결을 기대하여 더욱 希望찬 새해가 될 것을 회구하면서 新年辭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國會議員)

# 『어정 七月, 동동 八月』

—會務 一年을 돌아보며—

理事長 李 東 一

謙讓이 아닌 眞正한 意味에서 의 能力不及을 切感하여 苦辭하였음에도 不拘하고 重責을 짊어지게 된게 어제같은데 건들 八月이라는 말과같이 벌써 一年이 흘렀다.



力不足을 熱과 誠으로 「카버」 하리라 마음속에 다짐하며 理事全員이 同心協力하여 盡力하였으나 오늘에 이르러 지난 一年을 도리켜보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業績面에 疎漏했던 點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會員中에는 더러 여러面에서 큰 業績을 남겼다는가 큰 일을 치렀다고 激勵나 慰勞의 말을 해 주는 분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얼굴이 붉어짐을 禁할수 없었다.

그것은 財政的인 뒷받침이 있고 一旦 事業을 벌여놓으면 누구라도 그만한 成果는 거둘 수 있겠기에 더욱 그렇다.

就任初에는 그래도 일을 맡은 以上 萬難을 克服하고 不毛地帶인 이나라 速記界에 跳躍의 디딤돌을 마련하겠다고 꿈에 부풀고 希望과 意慾에 불타 東奔西走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쉬뜨거우면 쉬식는다는 俗談을 再確認한 結果를 nang고보니 會員 여러분을 對할때 스스로 自責을 느끼게 된다.

들어 내놓기조차 쑥스러우나 在任 一年間의 業績이라고 會員 여러분께 報告드리

지 않을수 없는 立場이기에 厚顏無恥하게 몇가지 協會로서 實施한 事業들을 여기에 羅列함으로써 業績報告에 代할까 한다.

먼저 今年 一年間에 있어서 本協會活動의 活力素가 되고 原動力이 된것은 두말할것 없이 前任

任員陣이 獲得한 100萬원의 國庫補助라 할 것이다.

아무리 計劃이 좋고 意慾이 充滿하며 能力이 있다 하더라도 財政이 窮乏한 狀況 아래서는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먼저 今年度의 事業計劃을 밝히고 이어서 實施한 事業을 報告하고자 한다.

總會에서 新任理事長이 受任한 缺員理事의 補選 및 各部長人選結果는

總務部長 楊澈在(補) 同理事 黃寅河(補)

宣傳部長 梁源龍 同理事 金永春(補)

事業部長 申世華(補) " 宋博文

資格審査委員長 韓鍾烈

研究委員長 李康賢

平理事 韓奉永 韓東春

이렇게 任員陣의 構成을 마치고 今年度에 實施할 事業을 再策定하였으나 너무 過慾이요 羅列式의 事業計劃을 세웠었다는 것을 自認하지 않을수 없다.

再策定한 事業計劃을 보면



## 一. 無料速記講習會의 開催

- 1) 放學을 利用한 講習會  
年 2回(1回 3週間 500名 計 1,000名)
- 2) 各部處公務員에 대한 講習會  
年 1回(30日間 300名)
- 3) 法院 및 檢察書記에 대한 講習會  
年 1回(30日間 100名)
- 4) 言論機關從事者에 대한 講習會  
年 2回(1回 30日間 100名)
- 5) 秘書 및 記錄擔當職에 대한 講習會  
年 1回(30日間 50名)
- 6) 各級學校 巡廻講習會  
5個校(1個校 42時間 100名 計 500名)
- 7) 地方巡廻講習  
年 2回(1個所 3週間 200名 計 400名)

## 二. 第一回全國速記競技大會開催

## 三. 速記士資格檢定試驗實施

## 四. 速記展示會開催

## 五. 會誌發刊

## 六. 速記學術研究

## 七. 速記界發展을 위한 座談會開催

以上 일곱개의 커다란 「테마」를 내걸고 事業에 着手하였는바

우선 無料講習會의 일곱가지중에서 放學을 利用한 講習會, 言論機關從事者에 대한 講習會는 100%, 學校巡廻講習會는 5個校中 3個校를 實施하여 커다란 成果를 거두었으며 特히 夏季無料講習會에 있어서 는 本協會에서 처음으로 英語速記도 並行 實施하였다.

다음으로 第一回全國速記競技大會는 지난 5月17日 國會速記士養成所에서 正準級 34名이 參加하여 技倆을 겨루었는바 이제까지는 記錄速度에 있어서 一分間 演說體 300音字 論說體 270音字以上の 突破는 遙遠하다고 밀어져 왔으나 이번 競技大會에 있어서는 各己 320音字와 300音字로 施行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入賞者들이 97.5%以上の 正確度를 나타내는 훌륭한 成績을 記錄하였으며 5月18日의 施賞式에는 崔致煥會長님께서 直接 賞狀 및 副賞을 親授하였다.

앞으로 이 事業은 年列行事로 實施함으로써 速記士들의 實力을 培養하고 一而 資質向上을 圖謀해야 할 것이다.

또한 外國에서는 이미 實施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試圖한 速記士資格檢定試驗 역시 5月17日 中東高等學校에서 施行하였다. 이資格檢定試驗에 있어서는 國語速記뿐만 아니라 英語速記도 같이 實施하였으니 國語速記應試者 54名中 24名 英語速記應試者 32名中 12名이 合格하였으며 처음 實施하는 事業이라 그 規模가 작고 進行에 있어서 多少 疎忽한 點이 있었으나 무사히 마쳤다.

本速記士資格檢定試驗은 앞으로 每年 그 回數를 늘여감에 따라 더욱 權威있는 檢定試驗이 되도록 協會로서는 總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思料된다.

다음에 今年度事業中 本協會로서 가장 心血을 기울이고 重要視한 事業이 速記展示會로서 過去에 2회에 亘하여 開催한 事實이 있었으나 大部分의 展示內容이 國內 速記分野에 관한것에 그쳤었다.

이번의 展示會는 光復 25周年紀念을 兼하여 協會로서 손이 닿을 수 있는 國內外의 모든 資料를 全部 蒐集整理하여 出品하였고 展示도 院內에만 局限하였던 것을 二元的으로 院外에서도 實施하였다. 그리고 모든 展示品은 專門家에 의하여 製作된 것이 아니고 本協會會員들의 손에 의하여 製作된 것은 特記할만한 事實이다.

첫째 9月 7日부터 9月10日까지 4日間 開催한 院內展示에 있어 特히 李孝祥議長

閣下 그리고 崔致煥會長께서 開館 Tape-Cutting을 해 주셨고 與野國會議員 丁一權國務總理 申範植文化公報部長官을 비롯하여 行政各部長官 言論人등 1,200名에 達하는 人士들이 參覽하였고,

둘째 10月 1일부터 10月 3일까지 3日間 國立公報館에서 開催한 院外展示에 있어서는 國語速記創案者 速記同人 그리고 速記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一般人등 9,900餘名이 參覽하여 本協會가 期待한 以上の 成果를 거두고 盛況裡에 幕을 내렸다.

다음 速記學術研究部門은 우리나라 速記界의 時急한 課題인 手筆速記의 研究改良과 한편으로는 機械速記 即 打字速記 그리고 나아가서는 「컴퓨터」에 의한 速記의 實現등 速記業務의 機械化를 하루속히 成就시키고자 研究 努力中에 있는바 이는 하루이틀에 그 成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每年 繼續事業으로서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會誌發刊문제로서 그間 우리나라 速記界는 會誌의 發刊을 財政難등으로 創刊號의 發刊이 最終號로 그치게 되는일이 許多하여 體制는 비록 자그마하지만 알찬 內容으로 끊임없이 發刊코자 努力하여 이번엔 4號를 發刊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梁源龍宣傳部長의 獻身的인 努力이 있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끝으로 速記界發展을 위한 座談會는 이를 無料速記講習會에서 實施하지 못한 部門의 豫算을 轉用하여 좀더 規模가 크고 內容에 있어 무게가있게 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開催코자 現在 文化公報部에 事業變更申請을 내고있으며 先進各國의 速記界現況에 關한 資料가 入手되어 이를

번역하여 來年の 計劃事業인 速記關係專門冊字 發刊의 資料로 삼을 計劃으로 亦是 事業變更申請中에 있다.

그리고 總會의 受任事項인 各支部結成 문제는 아직까지 各地方의 態勢가 갖추어져 있지않아 支部設置를 하지 못하고 있음은 悚懼스럽게 생각한다.

以上으로 本協會 70年度의 事業業績이 라기보다 會務報告形式으로 報告를 드리며 우리 任員陣이 就任初에 計劃했던 事業들을 盡善盡美하게 100% 完成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人間인지라 能力의 限界를 自認하지 않을수 없다.

다만 多幸스러운 것은 崔致煥會長 그리고 李聖秀議員 또한 本協會를 聲援하여주시는 國會事務處幹部 여러분의 努力으로 71年度豫算案에 108萬원의 國庫補助金이 計上되어 있으나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審議過程에서 本協會要求額인 348萬원에 가깝도록 增額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으며 國會速記職公務員의 技術手當을 月 5,000원에서 8,000원으로 3,000원이 引上되도록 努力中인바 그實現에 曙光이 비치고 있음을 會員 여러분과 함께 慶賀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庚戌年을 보내는 이 마당에 一年間 本協會를 위하여 努力을 아끼지 않은 各理事들 그리고 陰陽으로 도와주신 會員 여러분께 심심한 感謝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아 더욱 多福하심과 所願成就하기를 祈願하며 아울러 새해에는 本協會가 보다 發展되고 빛나는 業績을 남기기를 비는 바이다.



# 實務面을 通해 본

## 韓國速記의 發展史 (下)

金 鎮 基

### 4. 普及과 實務面에서의 發展過程

#### 가. 6.25前

前述한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速記는 許多한 陳痛을 겪은後에 自然發生的이라기 보다 우리나라 議會의 前身이라 할수 있는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開院을 앞두고 그 必要에 몰려 急造되다 시피 했지만 그래도 몇사람 先驅者들에 의해 實用할 수 있는 速記가 마련되었으며 그런대로 그 實驗도 成功을 걸우게 되었다.

이어 1948年 5月 31日 大韓民國 初代國會인 制憲國會가 開院되자 처음에는 成立期에서 記述한 대로 不過 13名의 速記士로 憲法의 制定을 비롯하여 各種의 國會立法 國政監查 및 政局의 混亂으로 인한 各種事件의 調查特別委員會 記錄等を 擔當하게 되어 우선 速記界의 急先務는 速記士의 量産에 있었다.

그러나 當時의 養成機關이라는 것은 私師에 依한養成과 몇개의 學院이 있었으나 各速記法 創案者들의 自己法式普及을 위한 試行期로 10餘名의 弟子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사랑방식 教

育을 시키는 단계였으므로 도저히 需要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1949年 4月 달에는 姜駿遠氏가 經營하는 서울速記專門學館에서 李鐘浩 韓奉永 두사람의 速記士를 輩出 制憲國會에 採用되었으며 逸波式速記士養成所에서 柳虎龍氏가 그리고 中央速記學院에서는 創案者인 朴寅泰氏 自身이 制憲國會 速記士로 採用되고 同年 7월 달에는 서울速記專門學館에서 具然東 申景鉉 逸波式速記士養成所에서 柳章熙 劉載殷氏 등이 追加로 採用되어 상당한 人員의 補強을 보았으나 同年 7월 달에는 李鐘浩가 또 12月 달에는 許樹와 李吉鉉이 사정에 의해 退職케 되어 그나마의 人員도 줄어들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本會議速記錄의 翌日發刊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으며 議會機能이 年輪을 거듭함에 따라서 分科委員會 및 特別委員會가 構成되고 점차 正常機能을 發揮케 됨으로써 業務量은 갈수록 山積하게 되었다.

이 期間中 特記할만한 事實은 不過 10餘名의 速記士였지만 民主議會 發生初부터 本會議史를 記錄한다는 自負心과 開拓者精神이 뚜렷하여 制憲議會末期인 1950





年 3 月달에는 會誌를 發刊함과 同時에 速記展示會를 院內에서 開催하여 議員 및 政府要人들에게 速記에 대한 認識을 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1949年 8 月 4 日 서부터 6 日까지 3 日間 當時 大統領이시던 李承晚博士와 自由中國 蔣介石總統이 銀海에서 頂上會談을 갖게되어 筆者와 許樹氏가 同會談의 速記業務를 擔當케 되어 우리말 速記가 最初로 國際會議에 進出하는 계기가 되었다.

#### 나. 6.25후, 4.19까지

2年任期の 制憲國會가 끝나고 第2代國會가 바로 6.25 動亂直前인 1950年 6 月에 開院이되었다. 그러나 動亂勃發 다음날인 6月26日의 第3次會議를 끝으로 動亂의 渦中에 휩쓸려 速記士들도 제각기 흩어지고 말았다. 따라서 速記士들의 피나는 努力으로 이루어져 온 議會記錄도 避難國會中(1950, 6, 25~9. 28) 中斷되어 애석하게도 祖國의 受難을 둘러싸고 國事를 論議한 記錄은 永遠히 찾을길이 없게 되었다.

그러다가 同年 9 月28日 首都奪還으로 大韓民國이 起死回生케되자 同年 10 月 서울에서 2代國會가 다시 열리게 되어 뿔뿔히 흩어졌던 速記士들이 모이게 되었으나 그 중에는 拉致된 者 附逆越北한 者 또는 動亂中 死亡한 者 등이 있어 金天漢, 韓龜永, 徐廷錄, 鄭源道, 張惠根, 韓奉永, 柳浩龍, 金龍完(1週日後行方不明)과 筆者뿐으로 動亂收拾을 위한 山積한 業務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일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재빠르게 養成機關들이 再整備되어 同年 11 月에는 逸波式出身으로 李鍾鎬, 韓奎勳, 楊佑鎭, 高麗式에서 李柱範, 서울式에서 尹炳高, 中央式에서 李東淳, 李暲熙, 解放式(現東方式)에서 蔡惠鄉 등이 新規採用되어 겨우 陳容을 갖추었으나

戰局의 惡化로 政府는 또다시 이듬해 1 月 4 日 釜山으로 首都를 옮기게 되어 1953年 還都때까지 臨時首都 釜山에서 苦難의 避難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때는 多幸히 國會와 더불어 速記士들도 全員이 避難을 하게되어 動亂直後와 같은 空白은 없었으나 51年 4 月에는 韓龜永和 徐廷錄이 同年 5 月에는 蔡惠鄉이 退職하고 뒤이어 李鍾鎬, 韓奉永까지 退職케 되어 다시 9.28收復直後와 같은 狀態로 돌아가게 되어 速記士의 補充이 時急하였으나 事實上 養成機關이 全廢되어 新人發掘의 機會가 막혀 51年 8 月에 不得已 他機關에서 他職에 勤務하던 速記士中에서 韓奉永이 다시 復職을 하고 逸波式出身인 尹載秀 서울式出身인 朴元求가 任命케 되었다.

한편 여러 養成機關들이 再整備를 서둘러 게 되었으나 1951年 9 月달에 高麗速記學院이 겨우 再開設되었을 뿐으로 新人速記士의 發掘은 絶望狀態에 이르러 方法은 오직 하나 日本과 마찬가지로 國會自體의 國費養成機關을 두는 길밖에 없게되어 1951年 12 月 1 日 速記를 理解해주는 많은 國會議員과 有志들의 積極的인 後援으로 國會內에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文教部長官認可)를 開設 約120名의 第1期生을 選拔하여 逸波法式으로 國費養成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同校에서는 學習期間을 1年으로 하여 主로 速記學과 速記術을 敎習케 하고 一般敎養科目(國語, 法律, 經濟, 常識)을 습하여 週18時間을 夜間으로 授業케 하여 速記學은 筆者와 鄭源道 張惠根三人이 擔當 敎授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처음으로 養成機關다운 養成機關을 갖게 되었으며 52年 11 月에 첫 卒業生을 輩出 其中 優秀한 者로 53年 5 月달에 林壽洪, 金宗弘, 崔英泰 등이 速



記士로 登用케 되었고 이보다 앞서 52年 10月에는 大邱에서 東邦速記學院이 再開 設되어 다시금 新人發掘의 계기가 마련되 었다.

그후로 次次 戰勢가 好轉되자 1953年에 는 다시 서울로 首都가 還都되어 現中央 廳에 議事堂을 定하고 모든 議會業務가 正常化되기에 이르렀으나 速記士의 不足 狀態는 여전하였다. 還都直後에는 釜山에 서 在職하던 速記士中 金天漢 朴元求만 이 退職하고 全員이 上京하여 勤務하였고 53年12月달에 逸波法式出身인 盧元鎬가 54 年 4月에는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出身의 鄭秉淑 또 同年12月에는 역시 같은 學校 出身인 宋貞浩等 7名이 採用되어 상당한 人員의 補強이 이루어져 課의 業務分擔이 1係에서 3係로 增設 鄭源道 張惠根 그리 且 筆者가 係長으로 補職케 되었으나 速 記錄의 發刊日數를 多少 短縮했을뿐 翌日 發刊까지는 아직도 不足한 人員이었다.

그후로 民間養成機關도 자리를 잡게 되 고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에서 每年 優秀 한 速記士들을 4.5名씩 輩出하게 되어 1955年에는 國會速記士가 36名으로 늘게 되었고 1958年에는 51名이 되어 國會速記 課編制가 3係에서 4係로 늘게 되고 李圭洪 이 4係長에 補職케 되었다. 다시 4代國會 末期인 60年 4月에는 60名이 넘는 大家族 을 이루게 되어 編制도 5係로 增設 5係長 에 金宗弘이 補職케 되었다.

이렇게 速記課가 팽창함에 따라서 制憲 國會에서 2代國會末까지는 議會制度自體 가 本會議 中心制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지 만 事實上 速記士의 不足때문에 分科委員 會의 速記錄은 作成하지 않았으나 2代國會 末에 있었던 國會法 改正으로 豫算決算 委員會가 獨立되면서부터 豫決委의 速記

錄作成 要請이 있어 그후로 各分科委員會 의 要請이 있는 경우는 速記士를 配置하 기에 이르러 議會初期 6名의 速記士로부 터 始作된 것이 그 10倍가 넘는 60餘名에 達했음에도 不拘하고 겨우 本會議와 豫算 決算委員會 會議錄의 翌日發刊이 實現되 었을 뿐 分科委員會의 記錄은 며칠씩 지 나야 겨우 原稿가 나오는 실정이었다.

이 期間中 우리 速記發展史上 特記할만 한 일은 1955年 4月 Geneve에서 열렸던 韓國문제 討議를 爲한 會談에 우리나라 代表團의 隨行員으로 當時國會速記士였던 柳虎龍氏가 派遣되어 最初로 國際舞臺에 進出하였다는 點과 1955年11月에는 大韓 速記學術協會라는 最初의 汎速記人團體를 構成 速記人的 相互親睦과 速記文化의 向 上發展을 위해 努力하는 한편 「速記文化」 라는 機關紙를 發刊하고 最初로 速記競技 大會를 갖고 56年 8月달에는 第1回夏季速 記無料講習會를 열어 速記의 大衆化를 위 해 努力했으며 1958年10月달에는 速記展 示會를 열어 速記를 認識시키는데 크게 공 헌한바가 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事實 은 1956年 地方自治制의 實施로 各地方議 會가 構成되어 速記士의 需要가 늘게 되 었으나 速記士의 不足으로 서울特別市議 會가 金仁寧(國會와 非公式兼務)外 4人의 速記士가 執務했을 뿐 江原道議會에 徐平 吉 全南道議會에 梁源龍 忠南道議會에 李 甲熙 이렇게 1個 道議會에 한사람의 速記 士가 業務를 擔當하는 實情이었다.

이와같이 民間養成機關과 國費養成機關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에서 계속 有能한 速記士들을 輩出했음에도 不拘하고 워낙 그 數가 적어서 如前한 供給不足의 狀態 에서 速記界는 한참 開花期에 접어들게



되었다.

#### 다. 4. 19以後, 5. 16까지

1960年 4月19日 이른바 4. 19革命이 일어나자 民主黨 執權下에 5代國會에 접어들어 우리議會는 그동안 憲法上 名目으로만 유지되어오던 兩院制가 實施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가뜩이나 有能한 速記士의 不足으로 兵役法上의 特惠規定까지 집어넣던 當時에 豫期치 않던 兩院制 實施는 速記界를 當황케 했다. 그래서 42名의 參議院速記士를 選拔했으나 大部分이 實務에 經驗이 없는 新人들이 였으므로 當時 參議院速記課長으로 補職받은 筆者는 不得已 民議院事務處의 協助를 얻어 民議院에 在職中이던 速記士와 按配하여 參議院速記士陣을 編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 因해 民議院의 速記課도 改編이 不可避하게 되어 鄭源道, 張惠根, 李圭洪, 金宗弘, 李柱範 등이 係長으로 補職되어 그 밑에 56名의 速記士로 編成이 되고 參議院은 李東淳, 盧元鎬, 韓奉永 三人의 係長 밑에 39名의 速記士로 編成되어 兩院을 合해 100餘名이라는 大家族을 이루게 되어 速記史上 最盛期를 이루게 되었다.

同時에 速記錄 作成上에도 하나의 轉機가 이루어져 國會法에 모든 會議는 速記法에 의하여 會議錄을 作成하도록 明文化되어 오늘날과 같이 各常任委員會의 會議錄도 速記에 의해 作成케 됨으로써 業務量은 폭주하게 되었으나 그래도 正常的인 體制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 라. 5. 16以後

1961年 5月16日 革命으로 民主黨政權이 무너지면서 布告令에 의해 民·參 兩院은 解散을 하기에 이르러 100餘名의 速記士는 하루아침에 職場을 잃는 事態를 빚었다.

다만 革命直後 當時 參議院자리에 國家 再建最高會議 企劃委員會가 들어 앉아 1部 參議院速記士들이 革命立法過程의 記錄을 擔當하였으나, 이 機構는 바로 國家再建最高會議에 흡수됨으로서 解體케 되었고 그후 最高會議에서는 現役軍人이었던 申彥植氏를 速記責任者로 하여 11名의 速記士가 1963年12月17日 民政移讓時까지 고된 速記業務를 遂行하게 되었다.

이어 63年12月17日의 民政移讓으로 6代國會가 開院되기에 앞서 國會法이 改正되므로써 5代까지의 本會議 中心制度가 常任委員會 中心制로 바뀌게 되어 業務量이 大幅 增加하게 됨으로서 다시금 많은 速記士가 必要하게 되어 第1次로 56名의 速記士를 確保하고 이어 계속적인 人員增加로 이제 89名이란 大家族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軍政2年半동안에 國會와 더불어 呼吸하던 많은 速記士들이 他職種으로 轉職하게 되어 現國會速記士의 構成은 많은 變化를 이르켰으며 그 사이에 民間養成機關은 거의 全部가 자취를 감추고 東邦速記學院만이 그 命脈을 維持했고 그동안 新人速記士養成의 大宗을 이루었던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는 5. 16革命直後 議會의 解散으로 自動解體된 채 民政移讓後 6代國會가 構成된 후에도 速記士養成機關은 復活되지 않아 新人速記士의 養成은 암담한 實情이었다. 거기에다 離職者마저 나날이 늘게 되자 時急한 對策이 必要하여 68年 2月 國會速記士養成所를 開設케 되었으며 여기서 이미 2回의 卒業生을 輩出 이中 69年 6月에 高隆繁外 6名의 新人이 速記士로 採用되고 70年 5月10日에는 崔性周外 7名이 新規로 採用케 되었다.



## 5. 우리 文化發展에 끼친 速記의 功績

以上에서 우리 20年速記史가 걸어온 길을 주로 實務面의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記述하였거니와 速記는 速記自體를 위해 存在하는 것이 아닌以上 우리 民族文化發展에 어떠한 공헌을 해 왔는지 대강 살펴보고자 한다.

速記란 原來가 말(言語)과 더불어 存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 곳을 따라다니게 마련이어서 말로써 國事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國會 또는 地方議會가 主舞臺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速記의 제일 큰 功績은 우리 議會가 생긴以來 오늘날까지(避難國會記錄이 없는 것은 애석한 일이지만) 國事가 論議處理된 過程이 산 記錄으로서 남겨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앞에도 얘기한 바와같이 1949年 8월에 있었던 韓中頂上會談의 記錄을 비롯하여 1955年 4月の Geneve 會議 記錄 가까이는 1966年 9月 2日부터 7일까지 6日間 우리나라 서울「워커힐」에서 開催된 第2次 A.P.U (亞細亞國會議員聯盟) 總會에서 우리 國會速記士들이 聯盟事務局의 一員으로 參與해서 記錄을 擔當한 일이며 釜山避難當時 各言論機關은 戰局의 不安 施設의 未備等으로 迅速하고 正確한 報道를 使命으로 하는 그들이 時時刻刻으로 變하는 戰況과 世界의 表情을 잡기위해 速記士들을 必要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가뜩이나 모자라는 國會速記士들이 주로 夜間에 兼職하여 筆者는 公報處와 U.S.I.S, 東洋通信에는 鄭源道(公報處兼務) 張惠根, 그리고 大東新聞 國際新聞 經濟通信에 金天漢, 中央放送局 時事通

信 世界貿易通信에 柳虎龍 韓奎勳, 中央通信 海軍政訓局에 李東淳 또 經濟通信에 楊佑鎮 이렇게 二重 三重으로 活躍을 하여 當時의 言論창달에 이바지 했으며 한편 全南日報에서는 1960年에서 1965年까지 梁源龍이 速記士兼 記者로 활약하였고 金融機關에서도 韓國銀行內에 있는 金融通貨委員會에서 柳虎龍 韓奎勳 등이 記錄을 擔當한 것을 비롯하여 各銀行의 株主總會에서는 반드시 速記士에 依한 會議錄을 作成하는 것이 慣例가 되었고 其他 各種 企業體에서 株主總會의 記錄을 꼭 速記士를 用하여 作成하는 風潮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大韓油公에서는 創設以來 理事會 記錄을 速記士에 의해 作成하고 있으며 政府機關 또는 各種團體에서 主催하는 各種「세미나」에서도 大部分 速記士들의 活躍이 있었다.

특히 몇몇 有數한 月刊紙들은 거의 每號마다 座談會 또는 對談記事를 速記에 의해 作成함으로써 우리 速記가 우리의 文化發展에 寄與하는 바 至大하다 아니할 수 없다.

## 6. 結 語

우리 速記가 成立한지 20餘年이 되었다. 물론 이웃나라 日本의 速記80年史에 比한다면 너무도 日淺하고 어린 나이이기에 사실은 이段階에서 速記發展史 云云하기에는 너무도 이르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速記史도 그 發芽期부터 따진다면 상당히 긴 歷史를 가진 셈이고 우리 民族文化史와 더불어 짧은 期間이나마 許多한 難關을 克服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記錄을 未備하나마 남기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그 발자취는 記錄해 놓을 必



要를 느꼈기 때문이다.

다만 유감인 것은 우리 速記文化가 主  
로 國會를 中心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結果적으로 國會速記 發展史의 범주를 벗  
어나지 못하였고 國會以外의 分野에서 活  
動한 部面이 資料未備로 包括적이고 概念

的인 記述에 그친 점이다. 앞으로 機會가  
있으면 좀더 具體的인 資料에 依해 補完  
할 것을 約束한다.

※ 參照文獻 速記概觀

<國會速記 第1係長·國會速記士  
養成所 教務主任>

(送) (舊) (迎) (新)

## 議 會 速 記 研 究 委 員 會

委員長	河	在	鳩
副委員長	劉	龍	珪
幹 事	金	鎮	基
幹 事	鄭	源	道
委 員	安	仁	榮
〃	李	東	一
〃	金	永	善
〃	崔	錫	模
〃	李	龍	洙
〃	金	敬	萬
〃	鄭	宇	鎔

# 國 政 監 查

—보다 效率的인 監查速記를 위한—

全 海 成

## 1. 國政監查

國政監查는 國會議員의 立法權 豫算審議權과 함께 가장 重要的 權限中의 하나이다.

國政監查는 憲法 第57條와 國政監查法 및 國會法 第124條와 第1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하는데 「國政監查는 一般國政監查와 特別國政監查 二種이 있다.」(國政監查法 第2條1項)

「一般國政監查는 國政全般에 亘하여 議員全員으로 班을 나누어서 同一한 期間에 施行하고」(國政監查法 第2條2項) 「特別國政監查는 國政의 特別한 部門에 限하여 國會法所定의 特別委員會로 하여금 施行하게 한다」(國政監查法 第2條3項)

그리고 監查委員會 또는 監查班의 構成에 있어서는 國政監查法 第7條1項에 規定한 「監查는 議員 2人以上으로 構成된 委員會 또는 班에 依하여 施行한다」로 되어 있고 同條2項에는 「前項의 委員會 또는 班은 同一한 國會交涉團體만으로 構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監查는 國會議員 2人以上이어야 되고 또 同一한 交涉團體만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監查는 國會의 承認없이 施行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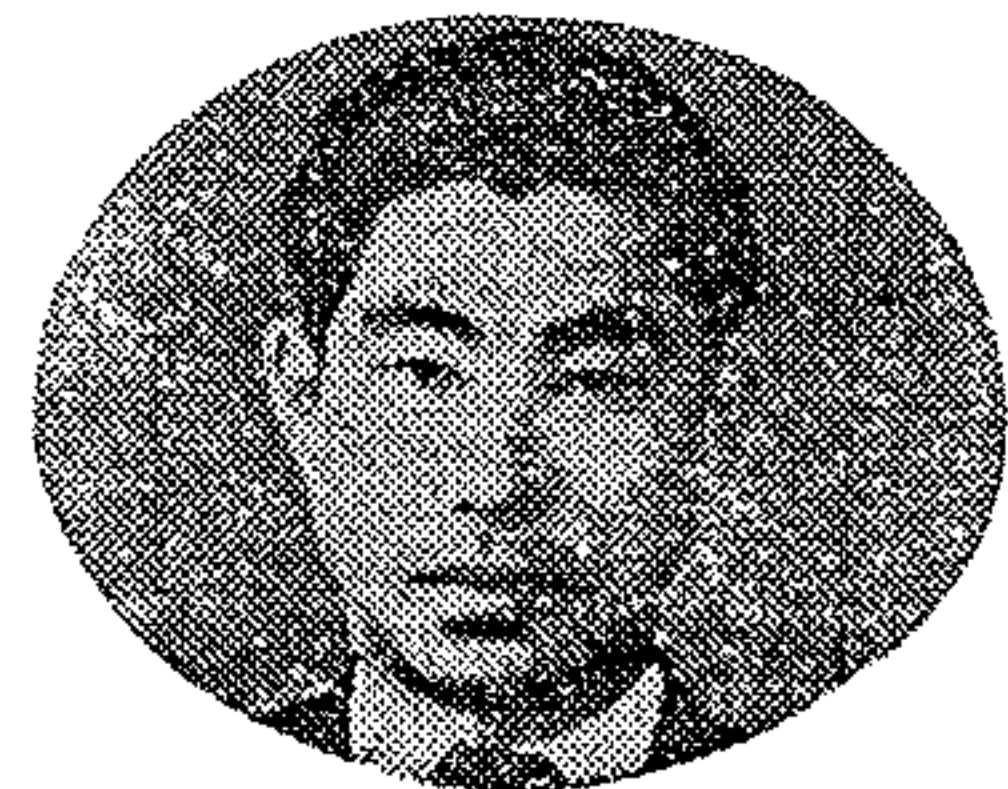
(國政監查法 第3條)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國會의 承認을 받아서 國政監查를 施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2. 速記士

速記士는 「議員이 監查를 할 때에는 事務補助者를 使用할 수 있다」(國政監查法 第5條1項)의 規定에 의해 監查委員會 또는 監查班의 事務補助者로서 監查速記原稿作成의 任務를 갖고 있다.

이 監查速記原稿作成에는 반드시 아래 事項을 記錄하여야 한다.

- ① 監查開始 監查中止와 完了의 日時
- ② 監查場所
- ③ 監查委員의 數
- ④ 被監查機關名
- ⑤ 被監查機關의 出席者
- ⑥ 監查委員의 質問과 被監查機關長의 答辯





### 3. 監査의 補助

速記士가 監査委員會 또는 監査班을 隨行 委員들의 監査活動을 補助하는 目的은 迅速 正確한 監査速記原稿를 作成하여 委員들의 監査活動에 도움을 줌은 勿論 正確한 證據力을 維持하고 監査報告書를 作成하는데 資料로서 必要하기 때문이다.

이런 重要的 任務를 遂行하는 우리速記士들에게는 迅速 正確한 速記原稿作成이 任務의 全部라고 할 수 있는데 監査班을 隨行하다보면 우리들에게 가장 重要的 國政監査資料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2,3次 督促을 해야 겨우 人員數대로 나오는가 하면 어떤 被監査機關에서는 部數가 制限되어 있다고 해서 人員數대로 나오지 않는 事例가 많은데 이것은 被監査機關에서 우리들의 業務를 理解못하는데서 오는 것 같다.

國政監査法 第12條에 보면 「監査를 받는 國家機關은 그 監査를 迅速히 完了시키기 위하여 充分한 協助를 하여야 한다. 其他의 國家機關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被監査機關에서는 監査의 協助를 監査委員에게 限한 것으로 判斷해서 그런지 特히 監査事務補助者인 우리 速記士들에게는 非協助的인 點이 每年 是正되지 않고 있다.

이런 非協助的인 문제는 一般國政監査인 경우 速記士들이 委員會에 配屬되어 있거나 專擔되어서 勤務를 하는 것이 아니고 一定期間인 監査期間동안 派遣勤務하는데서 오는 共通的인 問題點이라고 본다.

### 4. 專擔速記

專擔速記問題는 여러가지 長·短點이 있기 때문에 各者마다 意見이 다르리라고

본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서는 國政監査에만 關聯시켜서 그 必要性을 論及하려 한다.

첫째 現代社會가 專門化 分業化 科學化 되어 감에 따라 國會議員의 發言도 各委員會마다 用語가 다르고 같은 委員會에서도 分野別로 專門用語가 따로 있기 때문에 正確한 監査速記原稿를 作成하기 위해서는 우리 速記士들도 이제는 委員會別로라도 速記業務를 分掌 專擔(專門) 速記를 해야 되리라고 본다.

둘째 專擔速記를 하게되면 每年 一般國政監査때마다 일어나는 被監査機關의 非協助問題도 어느程度는 解決되리라 믿는다.

### 5. 出張 速記士의 增員

速記錄의 意義는 迅速 正確에 있는데 그중에서 迅速性이 缺如된다면 速記錄으로서의 意義는 喪失되는 것이다.

그런데 現在 一般國政監査에 隨行되는 速記士의 數는 監査班을 基準으로 해서 한 班에 2名씩 派遣되고 있는데 이런 狀態로서는 도저히 迅速한 監査速記原稿를 作成해 낼수가 없다. 例를 들어서 2名の 速記士가 하루에 監査時間을 6時間씩 10日을 隨行했다고 하면 한사람當 30時間을 速記한 것이 된다. 이것을 原稿로 作成하는데 最少 10倍를 보드라도 300時間이 必要한 것이다. 이것을 날짜로 換算하면 하루에 8時間씩 勤務하는 것으로 해서 37.5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37.5日은 監査에 隨行한 速記士가 監査後에는 다른業務에 從事하지 않고 監査速記原稿作成만 하는 경우다. 그러나 現在의 業務現況은 一般國政監査以後에는 豫算審議때문에 오히려 豫算審議에 優先權을 두고 있어서 監査速記原稿作成은 손이 미치지 않고 있다가 豫

算審議가 끝나야 作業을 할수 있는 實情인데도 委員會에서나 監査委員들은 監査速記原稿를 督促하고 있으니 우리 速記士들은 어떻게 하라는것인지? 이런 狀態下에서 果然 迅速하고 正確한 監査速記原稿가 나올 수 있으며 또 이 監査速記原稿가 얼마만큼 監査委員들의 監査活動에 도움을 주고 있고 專門委員의 報告書作成에 參考資料가 되는지 우리 스스로 疑問을 갖지 않을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迅速하고 正確한 速記原稿를 作成 監査委員들의 監査活動에 資料가 되도록 하려면 적어도 한班에 6名以上 隨行이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 6. 監査速記錄

監査速記錄은 常任委員會 會議錄과 같은 性格으로 다루어져야 함에도不拘하고 現在의 實情은 少數의 委員會만이 監査速記錄을 發刊하여 監査委員들에게 配布하고 있고 大部分의 委員會는 監査速記原稿 그대로 保管하고 있는 실정이다.

國會議員들이 本會議나 常任委員會의 活動狀況을 會議錄으로서 남겨두는것도 重要하지만 行政府가 果然 國會的 豫算審議로서 確定해준 豫算을 제대로 使用하고 있으며 計劃된 事業의 進行狀況 또는 政策的인 問題로서 中央政府에서 指示한 事項이 下部機關에서 誠實히 遂行되고 있으며 被監査機關의 現況과 隘路點等を 담은 이 監査速記錄이야 말로 永久保存되어야 되리라고 본다. 그런데 現在와 같이 監査報告書作成의 參考資料로 使用되는데 그친다는 것은 監査速記錄을 너무 가며히 取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나의 希望으로서는 이 監査速記

錄도 委員會의 會議錄과 같이 發刊하여 配布하고 또 監査報告書의 附錄으로서 採擇해주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7. 誠實한 責任完遂

우리 速記士가 監査班의 事務補助員으로서 命을 받고 監査速記原稿를 該當委員會에 引渡할때까지 우리의 任務를 얼마만큼 성실히 遂行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다. 出張速記士의 增員에서도 言及했지만 너무 많은 業務量을 擔當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監査班이 願하는 그런 短時日內에 監査速記原稿를 作成해서 引渡해 주지 않으면 마치 이것이 速記士가 맡은 任務를 성실히 遂行하지 않은 것으로 認定되는 事例가 許多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速記士의 業務를 올바르게 理解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문제라고 보아야 되겠고 問題가 있다면 같은 監査班을 遂行하고 監査後의 與件이 同一했음에도 가령 A는 監査速記原稿作成이 끝났는데 B는 못 끝냈다고 할적에 B는 誠實히 責任을 完遂했다고 볼수 없겠다.

우리 速記士에게 주어진 임무는 監査期間동안 監査班을 遂行하면서 速記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고 監査速記原稿를 作成 該當委員會에 引渡해야 責任이 끝나는 것이다.

被監査機關의 非協助라고 해서 우리들이 任務遂行의 가장 隘路點을 말했지만 우리 速記士 한사람 한사람이 國政監査速記錄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迅速正確한 監査速記原稿作成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운 現 與件이지만 最善을 다해야 하리라고 믿는다.



## 8. 맺는 말

毎年 國政監査때마다 事務補助者로 監査班에 隨行任務를 遂行하다 보면 위에서 말한 迅速正確한 監査速記錄作成에 대한 여러 問題點이 是正되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 되어 왔다.

그래서 國政監査때 느꼈던 몇가지를 내

나름대로 摘示하고 거기에 대한 方案까지 提示해 보았으나 未洽한 點이 한두가지 아니라고 본다.

이런 問題點이 하루빨리 改善되어서 우리들이 滿足한 狀態에서 事務補助를 하게 되고 또 監査班이 願하는 迅速하고도 正確한 監査速記錄이 作成될수 있도록 되었으면 한다. (國會 速記錄課)

### ◎ 國監餘話 ◎

## 調 達 廳 監 査 場

해마다 國政監査 때면 監査場의 座席配列 문제와 TV카메라·맨 그리고 放送·新聞記者들의 과잉取材活動으로 인한 各種 雜音때문에 지극히 監査內容을 바로 잡아야 할 速記士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비좁은 監査場이 입추의 餘지 없이 人群으로 병풍처럼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형편인데 速記士席은 委員長과 被監査機關長席에서 너무 떨어진 가장 惡條件의 位置에 놓여있기 일수다.

때문에 賢明한 被監査機關에서는 이 座席配列에 있어서 반드시 速記士席에 比重을 둔다. 즉 議員과 機關과의 質疑應答에 있어서 가장 잘 들리고 볼 수 있는 곳에 速記士席을 配列해둔다.

妄發일지 모르지만 이런 被監査體는 速記士쪽에서 보면 受監態度 滿點이다. 또한 거개의 경우 이런 被監査機關일수록 그 監査內容에 있어서도 別問題點 없이 誠實한 豫算執行을 해왔음이 밝혀진다.

今年 一般國政監査 財經委員會 所管 調達廳關係를 紹介하지 않을 수 없다.

70年 10月 16日 午前 10時 調達廳 監査場에 도착해보니 座席配列이 秩序整然하게 되어있을 뿐아니라 會議場의 모

든 視線이 速記士席에 集中되리만치 他機關과는 特異하게 誠意있게 速記士席이 마련되어 있었다. 즉 하얀 천을 덮은 기다란 책상위에는 速記士의 記錄環境을 集中시켜주기 위해 電氣스탠드를 가설해놓고 모든 騷音으로부터의 安定된 記錄을 할 수 있도록 最新型 레시버 장치를 해놓았었다. 무척 細心한 配慮였다는 점이 한 눈에 들어왔다. 무언가 감사하다는 人事를 누를길이 없어 우리協會 會員이며 調達廳 速記士인 金中衡兄을 찾아 물어봤더니 調達廳 企劃室 財政書記官 朴東錫氏의 配慮에 依한 것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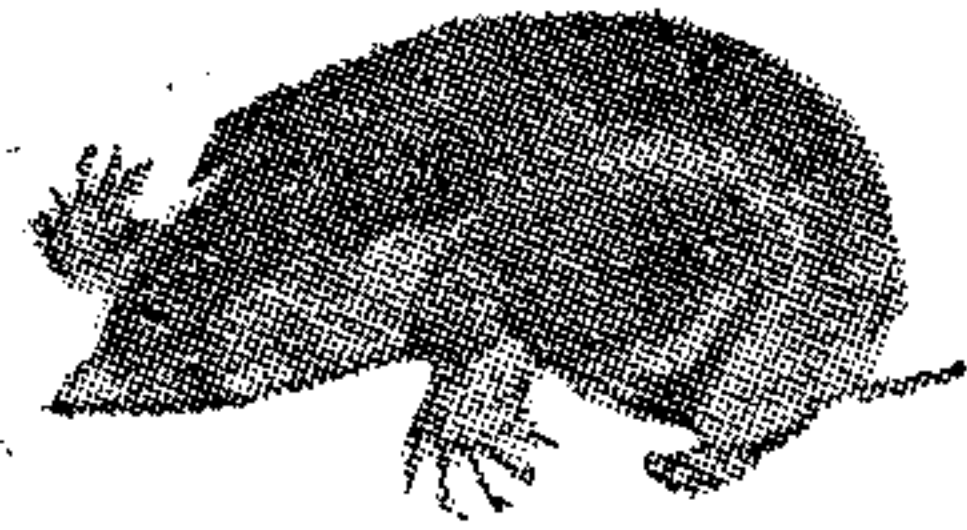
이분의 平素 速記熱은 대단한 것이어서 많은 豫算을 들여 速記補助器具를 마련 했으며 所屬速記士들의 待遇문제에도 크게 寄與하고 있다는 것이다.

監査場<로비>에서 朴書記官을 만나 致賀했더니 오히려 잘 부탁한다고 겸손해 했다.

모든 被監査機關이 이와같은 誠意와 配慮로 一貫된다면 監査때마다 무슨 雜音이 있을수 있겠는가

調達廳 朴東錫書記官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日後 더욱 榮光이 있기를 빈다. (源)

두더지



양원용

그는 <두더지>였다. 생김새부터 上下는 짧은데 左右로 피둥 피둥 퍼져있는데다가 교활한 눈동자가 실새없이 굴르고있는 형국이어서 더욱 앞말을 뒷받침 해주고 있을뿐 아니라 사실이 어두컴컴한 것만 골라 演出하고 있어서 L兄의 <두더지>命名은 그 누가 보아도 痛快하리만큼 公正한 判定이었다.

그래도 그 <두더지>는 비록 陰地에서 일하고 있지만 지금 한참 陽地를 向한 出世街道에 서있으니 정말 딱한 일이다. 人間의 古典的 二大類型인 동키호테나 햄릿 ㅅㅅ과는 거리가 먼 그런 sly한型이라야 人口爆發의 競爭에 適性型인지는 두고 볼 일이라 하겠지만 하여튼 딱한 일이다.

각설하고 이 <두더지>君과 어쩔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되는데는 70년도 一般국정감사 某위원회 某부처 連絡官이라는 그의 身分때문에이다. 감사장에 나가노라면 國會議員·專門委員·行政室직원석 冊床위에는 수다한 감사자료가 얹혀있는데 유독 속기사석에는 깨끗하다. 국정감사에 조금의 상식이 있는분이라면 감사내용의 복잡한 計數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速記士에게 없어서는 안될 資料란걸 알고 있을 것이다. 速記士는 기계가 아니다. 그도 人間이다. 잡다한 소음속에서 불명료한 發言을 失手없이 잘 잡아낼 것이라고 기대

했다면 그건 速記士의 人間性을 否認한 것이다. 이런 판국에서 資料마저 주지않는다면 速記士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比較的 속기사는 모가 없이 順하다. 그 이유는 細密한 作業을 하다보니 조금만 뻘이 풀리거나 흥분하면 作業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順하게 조정하는 다년간의 훈련이 몸에 베어 있는 까닭이다.

머 그렇다고 속기사에게 五腸六腑가 없으란 법은 없다. 오히려 피가 거꾸로서는 腸腑가 있다.

資料없는 速記席을 바라본 速記士는 해당部處의 連絡官을 찾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被監查體에 직접 요구할수도 있지만 아직 國會議員도 監查場에 나타나지 안했는데 자칫 速記士가 무슨 監查權을 發動하는 것 같은 소망스러운 일이 아닌 인상을 줄까마 速記士는 항상 이를 삼가한다. 行政室 職員쪽을 본다. 이들은 이 들대로 바쁘다. 의자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리뛰고 저리뛰다. 그러니 결국 연락관을 찾는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보아도 간 곳을 알길이 없다. 하는수 없이 監查는 시작되고 속기사는 가뜩 흥분한 상태를 폭발도 못한채 順한 상태로 되돌아갈려고 애쓴다. 그런데 이 홀륭하신 連絡관님 꼭 묘한데서만 만나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午前監査를 끝내고 점심을 먹는 食卓에 앉아 있노라면 그렇게도 찾아 헤매이던 이 연락관선생 어데가 숨어 있다가 꼭 점심먹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니 기막힌 일이다.

10月 ×日 ×기관에 대한 監査를 끝낸

점심食卓——그것도 萬座가 꼭 메인 榮光스러운 자리. L兄의 一喝이 우렁차게 메아리쳤다. 「당신 꼭 <두더지>같단 말이야……」

萬座가 허리를 잡고 웃었버렸다.

..... (海) ..... (外) ..... (消) ..... (息) .....

지난 11月 22日 日本 衆議院記錄部 第2課 主任 速記士이며 日本速記協會 調査部 및 編輯部 委員인 薄葉威士氏로 부터 本協會 會員 安仁榮氏(速記第3係長)에게 다음과 같은 書信이 接受되었다.

「저는 日本衆議院의 主任 速記士입니다. 貴下에 대해서는 當院의 落合 速記 監督으로부터 그리고 貴協會 機關誌 速記界 第3號에서 拜見했습니다. 今年에 들어 速記界 1, 2, 3號의 贈呈을 받아 韓國의 速記現況을 알게 되어 대단히 多幸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現在 速記士의 世界的인 聯合體인 INTERSTENO 에 日本이 正式加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去年의 第28回 大會에 세사람의 「음서버」를 보냈고 來年の 第29回 「부랏셀」大會에는 10수명의 「음서버」를 派遣할 豫定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西歐諸國에서 가장 關心을 갖고 있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速記現況에 대해 우리들은 充分한 研究를 거친후에 이 大會에 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韓國의 速記現況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지만 詳細하게 알고저 합니다. 特히 우리들로서는 韓國의 速記史와 符號 그리고 原理 構成面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拜受한 速記界 第3號에 韓國의 速記史에 대해 記事가 실려 있었읍니다마는 황송하게도 저희들이 韓國語를 전연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可能하시다면 英語 또는 日本語로 번역 해주시면 대단히 感謝하겠습니다. 또한 그의 速記 教科書나 參考書도 같이 보내 주셨으면 多幸이겠습니다. 우리들로서도 만일 韓國側에서 日本의 速記現況에 대해서 알고싶은 資料나 書籍등을 要求하시면 언제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無禮한 付託인것같습니 다만 韓日간의 文化交流 및 世界の 速記界를 위해서 善處 바랍니다. (後略)

# 國政監査와 速記士

## 參 席 者(敬稱略)

- |                |             |
|----------------|-------------|
| 劉 龍 珪 (國會速記課長) | 李 龍 洙 ( " ) |
| 金 仁 寧 (國會速記士)  | 任 哲 淳 ( " ) |
| 韓 鍾 烈 ( " )    | 金 基 英 ( " ) |
| 孫 弘 基 ( " )    | 梁 源 龍 ( " ) |

司 會 : 李 東 一 (本協會理事長)

速 記 : 河 良 培 吳 允 根 記者

日 時 : 1970年12月 8 日 午前 10時

場 所 : 中 興 樓

司 會 요즘國會豫算審議에문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모시고 해마다 실시되는國政監査에 있어서 監査補助員으로 隨行하는 速記士의 現實的인 位置 또는 監査速記實務面에서의 諸般 문제점 내지 改善點과 速記士 스스로의 是正點을 切磋함으로써 國政에 參與하는 速記士의 보다 健實한 座標를 찾고져 합니다.

또한 國政監査班 隨行中 速記士였기에 느꼈던 여러가지 호뭇했던 점 또는 어려웠던 점등을 부담없이 公開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國政監査補助員이라는 速記士의 法的地位에 대해서 劉課長님께서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劉課長 먼저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協會側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즉 이런 試圖가 이루어져서 보다 충실하

게 監査業務遂行姿勢가 確立되고 스스로의 權益增進과 自省의 契機가 마련되어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議會政治가 시작된 制憲國會以來 7代國會에 이르기까지는 定期 一般國政監査를 비롯 數多한 特別國政監査와 特別調查委員會 그리고 주네브 또는 APU 등 各種 國際會議에 수많은 우리 國會速記士들이 參與하여 議政史를 收錄하는 歷史的的使命을 완벽하게 遂行해 왔읍니다. 이는 民主憲政史의 山證據요, 證人이며 貴重한 史料이고 寶典으로서 子孫萬代에 남겨질 것입니다.

이러한 國政의 核心에서 歷史的的使命을 다하고 있는 監査補助員으로서의 速記士의 法的地位를 살펴본다면 우선 憲法第57條에 國會는 國政을 監査할 수 있는 國政監査權을 規定하고 있고 國政監査法第5條에 「議員이 監査를 할때에는 事務補助者



를 使用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어 이에 依하여 速記士는 事務補助者로 國政監查에 隨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國會法第108條 第2項에는 「會議錄에는 速記法에 依하여 모든 議事를 記載하여야 한다」 이렇게 強制規定으로서 받드시 國會의 모든 議事에는 速記士가 速記法에 依해서 記錄하도록 하고있는 것입니다.

梁源龍 그러니까 國政監查도 廣義의 會議이고 議事인 이상 速記士 없는 監查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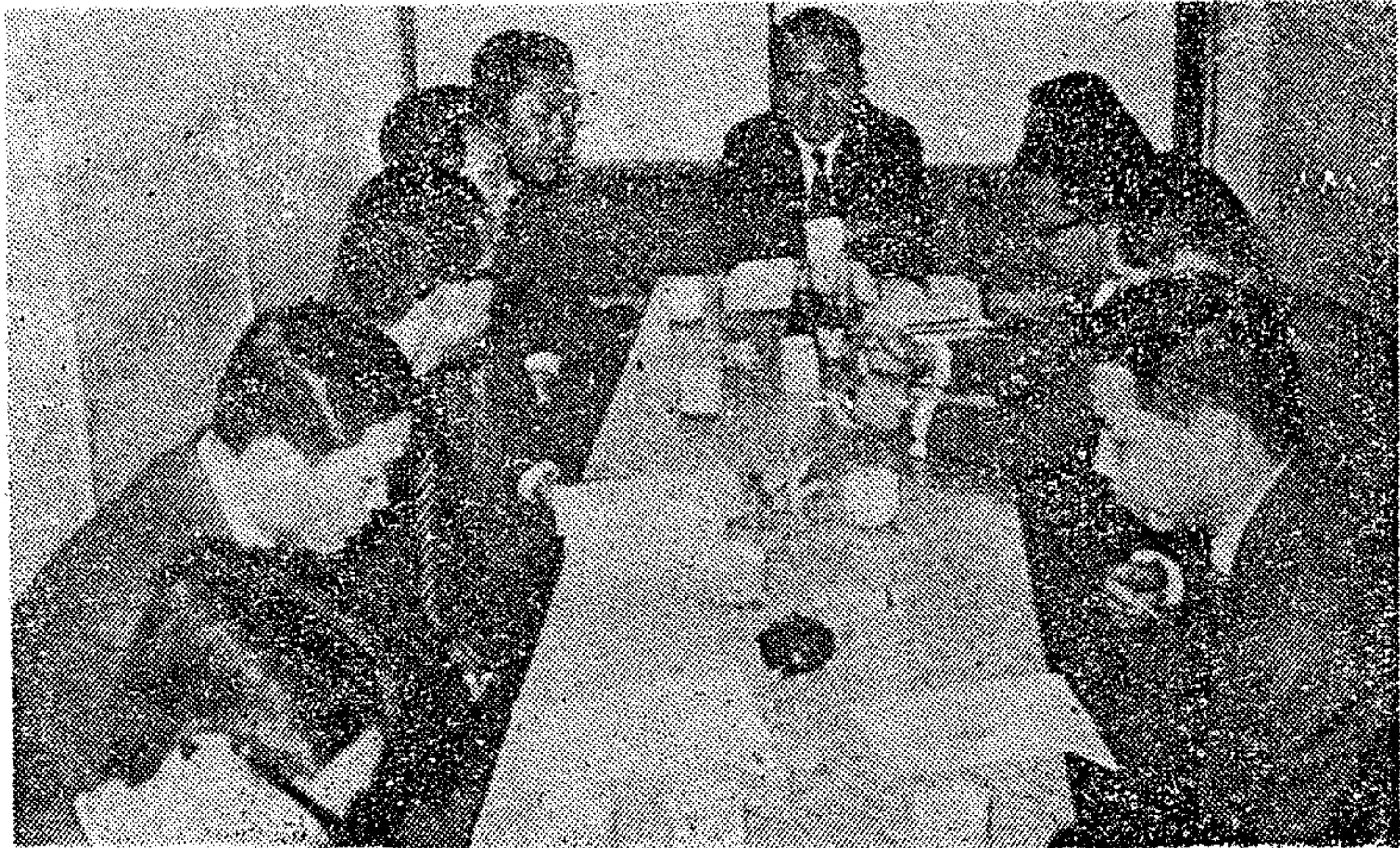
孫弘基 그렇지요. 監查場에 나가면 우선 監查班長의 監查宣言과 專門委員의 關係法條文 朗讀·被監查機關長의 宣誓·監查

內容, 出席議員數·被監查機關參席者名 등 要式記載事項을 速記士가 記錄하게 되어 있어 速記士 없는 國政監查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金仁寧 우리가 現實的으로 監查補助 實務面을 통해 보더라도 事實上 速記士 없는 監查는 想像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金基英 제가 隨行했던 監查班에서는 自動車事情 때문에 議員보다 조금 늦게 監查場에 나갔는데 全議員이 座席을 配定하고 速記士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일도 있었어요.

劉課長 문제는 法理論的으로 速記士의



法的地位를 따지기 이전에 重要的 國事를 論議하는 國政監查班 事務補助員으로서 말은바 任務를 誠實히 해내는 姿勢에 보다 意義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모든 歷史는 瞬間에 이루어지며 速記士는 이 瞬間을 잡는 砲手」라는 말처럼 速記士는 이 歷史的的使命에 긍지와 自負를 가지고 臨해야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國政監查 隨行中 여러가지 즐겁고 호뭇했던 점이란까 보라

같은 것을 느끼셨으리라고 믿는데……

金仁寧 해마다 國政監查 出張때마다 切感하는 것이지만 亦是 우리의 손에 의해 國政의 是是非非가 담겨진다고 생각할때 무언가 崇高하리만큼 경건한 보람같은 것을 느낍니다.

韓鍾烈 意識이전에 어깨가 짝 펴지지요. (웃음)

金基英 우선 出張命令을 받아 各 監查班에 配置되면 그날로부터 몸가짐에 신경



을 쓰게 됩니다. 담배 하나를 피워도 조심스럽게 피워야 되고 同僚끼리라도 함부로 하는 言行을 삼가해야 하고 服裝도 단정히 해야하는 苦痛도 있습니다만 如何든 一年에 한번 있는 出張에다 오랫동안 서울을 떠나 全國방방곡곡을 돌아볼 수 있으니 速記業務中 이때처럼 신나는 때도 별로 없지요. (웃음)

孫弘基 물론 그런面도 있지만 우리 業務 자체가 唯一한 證據力이 되었을때가 가장 보람을 느낄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過去의 張勉副統領被擊事件이나 金昌龍被殺事件 등에 대한 國會特別調查委員會 調查活動에 있어서의 速記士의 役割은 실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韓鍾烈 重要な 證言을 들을 때에 상대



질수록 速記士들의 記錄하는 손도 같이 흥분하기 마련입니다. (웃음)

韓鍾烈 어떤 議員은 被監查機關에 대한 40餘가지의 資料要請 「리스트」를 發言 없이 그대로 速記席에 넘겨 速記錄에 記錄하도록 하면서 被監查機關에게는 速記士에게 가서 배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상당한 「뉴앙스」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번거롭게 40여가지의 資料要請 「리스트」를 일일이 읽지 안해도 되는 實效도 있으면서 速記士의 存在價値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司 會 그外 「에피소드」같은거……

韓鍾烈 特別調查委員會 隨行員으로서

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얘기하고있는 것이 일일이 記錄되고 있다는 것을 意識하면서 얘기하게 일부러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證言을 正確히 들을 수 있고 後에 반복할 수 없게끔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任哲淳 某機關 監查에 갔을때 일인데 어떤 答辯이 문제가 되어 그랬느니 안했느니 論爭이 벌어져 가지고 結局 速記錄을 朗讀하게 되었습니다. 그 部分을 朗讀하고 보니까 결국 失言을 한것이 分明해져서 곧 사과를 하고 그 部分의 發言取消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때 監查班隨行의 보람이 있더군요.

梁源龍 監查途中 어떤 不美事實을 追窮하는 議員의 고함소리가 높아지면 높아

現地에 가게 됐는데 當時 사정에 의해서 議員들보다 隨行員이 먼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現地에 도착해 보니 여러분들이 도열해 가지고 國會議員으로 誤認하고 敬禮를 하는거예요. 그러니 人事를 안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을 수도 없고…… (웃음) 하는 수 없이 일응 인사는 받는것 처럼하고 악수를 청하는 손에 힘을 주면서 「議員님들은 뒷車로 오십시오」했지요. (웃음)

金仁寧 어느때가 韓兄하고 같이 監查隨行을 한 일이 있는데 그때 어느 機關에 가니까 우리에게는 人事를 안하는데 유독 韓兄에게만 정중히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體驅는 크고 봐야할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웃음)

任哲淳 議員들을 따라 이미 도열해 있는 軍樂隊의 奏樂에 맞춘 儀仗隊 사열을 어리둥절하게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軍儀典上 查閱을 하는 것은 資格制限이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웃음)

金基英 대개의 경우 監査班은 議員보다 隨行員이 먼저 도착하기 마련입니다. 監査場의 座席配列點檢이라든지 실질적으로 必要에 의한 點檢도 있지만 議員은 이미 도착해서 監査實施態勢를 取하고 있는데 隨行員이 그때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유해서 여러가지 웃지못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金仁寧 저도 L-19을 타고 某基地를 向했는데 氣象條件이 나빠 隨行員이 탄 비



金基英 가장 큰 隘路點이 監査場內의 速記士席配置문제입니다. 아주 듣기 어려운 자리에 配置되어 있으면 그날은 김이 싹 새버립니다. (웃음)

任哲淳 어느 部處를 갔더니 長官答辯席과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가까운 자리에 옮겨달라고 했더니 長官의 承認을 말아야 된다는 것이네요. (웃음)

어처구니가 없어서 委員長에게 「座席관계로 도저히 速記不能입니다」했더니 會議를 中斷하고 즉각 速記士席을 委員長席 옆으로 옮기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梁源龍 TV-뉴스·카메라맨들이 그 비좁은 監査場을 누비고 다니면서 「찍-」하는 카메라 돌리는 소리를 내는데 이것 또

행기는 그런대로 가까스로 着陸했지만 議員들이 탄 飛行機는 途中에 오다가 도루돌아가 버렸습니다. 地上에를 보니 軍樂隊와 儀仗隊가 늘어서서 벌써 吹樂을 시작하고 있는데 도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걸어나갈 수도 없고 혼났습니다. (웃음)

韓鍾烈 商工委員會監査를 수행하면 江原道 炭礦 굴속에까지 들어가 보게 되는 일이 있는데 事實 外面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헬멧」을 쓰고 安全措置를 한다 하더라도 地下 900米까지 갔다가 나오면 議員이나 누구나 할것 없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 있습니다. (웃음)

司會 다음에는 어려웠던 점 隘路點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사람 미치게 합니다. (웃음)

孫弘基 議員數가 많은 監査班이나 混雜을 이루는 監査場에는 可能하다면 <레시버>裝置가 돼 있으면 해요. 여기 저기서 떠드는 소음때문에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梁源龍 財經委所管 調達廳監査를 갔더니 調達廳에서는 最新高性能<레시버>裝置를 했을 뿐만 아니라 速記士席에다만 電氣스탠드를 裝置해서 速記執務環境을 100% 配慮했더군요. 아주 印象이 좋았습니다.

任哲淳 대개의 경우 그런데까지 신경을 쓴 被監査機關일수록 監査指摘事項도 적은 아주 誠實하고 健實한 面이 보이더군요.

韓鍾烈 座席配置문제 못지 않게 또 重要한 것이 이 資料문제입니다. 監査場에 나가면 委員會 職員席까지 監査資料가 다 얹혀있는데 가장 資料를 必要로 하는 速記士席에는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特히 計數上으로 따지는 監査에 있어서 숫자하나라도 틀려져서는 안되는데 資料가 없어서 쪼쪼 매는 때가 있습니다. 座席도 나빠 잘 들리지도 않은데다가 資料마저 없으니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劉課長 앞으로 그런 문제는 各 委員會의 協助를 얻어서 是正되어 나가리라고 봅니다.

司 會 다음에는 監査速記錄 早期完成에 수반되는 문제로서 隨行速記士 增員 문제가 있는데 이런 點에 대해서 課長님께



金仁寧 사실出張나간 한 사람의 速記士의 分量이 200字原稿紙로 1,000 페이지가 넘는 實情인데 早期脫稿란 현재로서는 기대될수 없습니다. 豫算審議가 끝나고 定期國會 會期가 끝난 翌年 1月경에나 가야 脫稿되는 實情인데 이 人員 增員 문제는 좀더 政策的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孫弘基 增員은 곧 豫算문제와 結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次元이 높은 층에서 研究되어주었으면 합니다.

司 會出張나간 速記士마다 돌아오면 모두 速記의 專門化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즘 모든分野의 發言內容이 專門化되고 特殊化되어 있기 때문에

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劉課長 監査速記錄이 조속히 完成이 되어서 議員들의 活動에 實質的인 도움을 준다는 문제가 사실 重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委員會에 4名 내지 6名, 심지어는 2名밖에 나가지 않는 委員會가 있는데 이러한 적은 人員으로 20餘日間の 莫大한 速記執務를 하다보니까 그 量이 엄청나게 방대해 監査가 끝난후 短時日內 監査速記錄 完成이란 現實的으로 不可能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監査가 끝나면 곧 新年度豫算審議에 들어가기 때문에 監査速記錄을 整理할 實質的인 時間的餘裕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改善點에 대해서는 事務處當局에서도 계속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分野에 생소한 速記士는 그 發言의 消化를 잘못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財經委는 財經委대로 그 財政的專門술어가 있고 國防은 國防대로 軍事用語가 튀어나오고 商工은 商工대로 무슨 기계 부속품 이름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생소한 速記士는 어리둥절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速記士를 아예 各委員會에 配屬시켜 專門語·特殊語·新作語·外來語등에 대해 平素부터 공부하고 귀에 익혀둌으로써 業務의 萬全을 期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課長님께서 생각해보신 일이 계십니까?

劉課長 말씀하신 委員會專屬문제를 위시해서 速記課 職制改編문제 또는 增員



문제등에 대해서 현재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業務遂行에 能率的인가 지금 銳意研究段階에 있습니다. 아직 研究단계에 있는 문제이기때문에 지금 곧 委員會에 專屬시킨다든가 하는 말을 할수 없는 계제에 있습니다.

司 會 오늘 座談會는 누가 무엇을 잘 했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業務遂行에 萬全을 期할수 있느냐 하는 方向提示에 目的을 두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부각되었는데 이

를 마무리한다면 우선 內的문제에 速記士가 國政監査에 臨함에 있어서 各委員會와 相互協助관계가 先行되어야 하겠고 스스로의 業務遂行에 正確과 迅速을 期해야 하겠고 外的문제에 監査速記錄의 早期完成을 위해 出張速記士의 增員이 要請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파헤침으로서 內的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外的문제는 行政的인 <체널>을 通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長時間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 <關係法條文>

☆ 憲法 第57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證人의 出席과 證言이나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다만 裁判과 進行中인 犯罪搜查 訴追에 간섭할 수 없다」

☆ 國會法 第124條 「國會 또는 委員會는 議案 기타 案件의 審査와 國政에 관한 調査를 위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本會議의 議決로 議員 또는 委員을 派遣할 수 있다……」

☆ 國政監査法 第2條 1項 「監査는 一般監査와 特別監査의 2種으로 한다」

☆ 國政監査法 第5條 1項 「議員이 監査를 할 때에는 事務補助者를 使用할수 있다」

☆ 國會法 第108條 1項 「國會는 會議錄을 作成하고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以下省略)

2項 「會議錄에는 速記法에 依하여 모든 議事를 記載하여야 한다」

☆ 國會法 第64條 2項 「委員會의 議事는 速記法에 依하여 이를 速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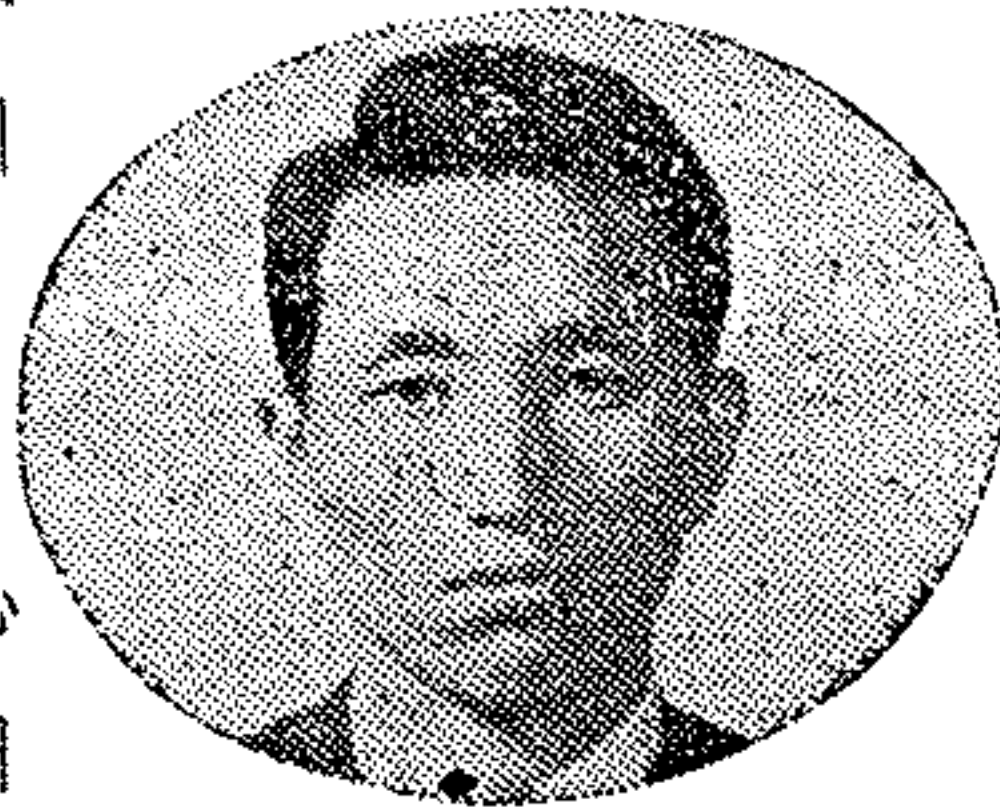
# 나의 速記活動

== 調 達 廳 ==

金 中 衡

速記에 關心을 갖게 된것은 中學校에 다니던 무렵으로 日本에 있던 時節부터였다.

當時에도 早稻田速記가 新聞이나 雜誌上에 宣傳되어 好奇心을 갖게 했으나 그때는 直接 배울 機會를 갖지 못하고 故國에 오게 되었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이나 그 當時에는 우리 말을 할줄 몰라 찢찢 매던 일을 생각하면 至今도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던中 病을 앓게 되어 入院을 하게 되었다. 長期治療를 받게되니 지루하고 답답한 病院生活에 歲月만 虛送케 되는것이 안타까워 日本語速記冊을 古書店에서 求得 獨習했는데 그것이 田鎖式速記였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한번 한글速記를 배워 말도 배울겸 速記技術도 익혀 다시 日本에 돌아가게 되었을때 特異하게 稀少價値를發揮해서 有用하게 活用하자고 마음먹고 高麗式速記講義錄을 받아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를 速記界에 발을 딛게하는 直接的 動機가 되었다.

그後 上京하여 當時 敦義洞에 있던 高麗速記技術學院에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職業速記士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參議院速記士試驗準備에 한창인 때에도 試驗에는 關心이 없고 技術習得에 餘念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學院이나 마찬가지로 就職問題에 關心을 기울

이듯이 職業速記士輩出에 熱을 올리던 學院 雰圍氣에 쏠려 現職인 調達廳에 勤務하게 되고 말았다.

調達廳에서 速記가 必要한 것은 外資物資를 購買契約할 때 提起되는 여러 問題를 明白히 記錄해 두고 次後에 惹起되는 物議에 對備하며 또한 監査院 監査에도 參考書類가 되게 하기 爲해서인데 速記를 알게되는 우리(調達廳에는 2名の 速記士가 있다)에게는 許多한 隘路가 많다.

外資物資導入이라 하면 國際貿易關係가 되는데 英語가 貿易上의 通用語인 만큼 會議時에 英語가 차지하는 比重이 적지않다.

처음으로 會議에 들어가던 때인데 議會 速記中心으로 공부를 한탓인지 몇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座談會라고도 할수 없는 그런 妙한 狀況이었다.

大部分 契約課 擔當課長이 司會役割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말이 나오기 始作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參席해주셔서 大端히 感謝합니다. 이번 모임은……」

이렇게 말이 나오므로 이程度야 別것이 아니구나 했었는데 繼續해서 말이 나오다가 本件에 접어들자

「…OSROK 側 IFB 上의 Special instructions 를 보게 되면 첫째 Terms of insurance 는 WAIOP로서 CIF 110%…」

이런式으로 英語半 國語半으로 섞여 나오는 것을 쓰게되자 아찔하기 始作하는데 나오는 소리마다 「B/bond, P/bond」다 「CQD」다 「B/L」다 「FAS 로 하면 어떻고」 이렇게 되니 그야말로 소리를 쓰는 것이나 다름없는 氣分이었다.

이렇게 열렬한 氣分으로 2時間 남짓을 記錄하고 나면 即刻 整理를 해야 供覽에 돌려 決裁를 올릴 수 있다는데야 啞然하지 않을수 없고 그런 판에 翻文에는 速記時間의 10배의 時間이 所要된다고 말해야 通할理 없어 그날은 밤샘을 하는데 소리로 썼던 낱선 英語單語를 콘사이스를 뒤적여서 앞뒤 文章에 맞는 單語音을 찾아내서 가짜스로 만들어 提出하면 擔當者가 今時 잘못된 點을 指摘하여 是正을 要求해오는데 이때처럼 마음 아픈때는 없었다고 지금도 회상해 본다.

그렇게 數年을 經過한 지금도 記錄後에는 擔當者를 찾아가서 要點을 듣는때가 많은데 速記自體에 對한 限界性에 對해서 懷疑를 느끼는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여기에는 여러原因이 있다고 보는데

① 業務의 特殊性으로 因하여 外國語 混用이 不可避하다.

② 會議構成이 少數人員인 때일수록

free talking 이 되어가는 경향이다.

③ 會議進行의 未熟으로 한 Item 의 完全한 結末을 보고 다음 Item 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④ 化工藥品, 電氣, 機械 등의 品名과 專門的인 用語使用이 많아졌다. 등

其他 여러가지 原因이 있겠으나 先進外國에서 처럼 各分野마다 專門速記士가 있어서 自己分野대로 活動할 수 있다면 좀 問題는 달라지리라 보지만 外國 이야기는 어떻게든 現位置에서 最善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自然 要領速記가 되지 않을수 없고 또 需要者도 그걸 願하는데 한 마디로 要領速記라 하지만 當事者가 아닌 3者的 立場에 있는 速記者로서 바라는바 要點을 把握하기란 또한 힘드는 일이라는 것은 贅言의 餘地가 없다. 또한나 餘談으로 지난날의 失敗作이 생각난다. 國會事務處에 있는 K 兄을 따라 2,3年前 韓·日漁業會談에 日本語發言을 記錄하기 위해 參席한 적이 있다. 그때 半島Hotel에서 會議를 開催하였는데 그때 잘 待接받으면서 副業을 한 셈이었다. 그때가 여름이였기 때문에 南方샤쓰입은 그대로 會議場에 나갔다 全部 그 더운 여름인데 벅타이 메고 正裝을 했는데 나만이 샤쓰입은 그대로여서 어쩐지 뒤통수가 뜨거울 지경인데 아니나 다를까 첫날 會議가 끝난뒤 水産廳의 某局長이 점잖게 曰「적어도 國際會議인데 에치켓은 지켜야 되지 않겠오」하는데야 이날 氣分은 완전 잡친셈이다. 난들 그만한 에치켓은 모르는바 아니나 해마다 여름에는 事務室에서 벅타이를 매지 않게 되어 있는 버릇때문에 그대로 나간 것이 그만 그렇게 되었는데 그거로서 끝났어야 할일이였다. 그날 저녁 부랴부랴 洗濯所에 맡겨논 洋服을 찾으러 갔더니 洗濯이

안되어 어쩔수 없이 B兄의 옷을 빌려다 놓았는데 더웁기는 하고 마루에서 原稿整理를 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걸려 있던 옷과 구두 심지어 와이셔츠까지 몽땅 盜先生이 失禮해가 버렸다.

結局 그때 받은 速記料는 고스란히 B兄 옷값에 들어가버렸으니 徒勞로 끝나고만 셈이었다.

끝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國會에만 速記士가 있는것이 아니고 政府各部處에도 制度的인 惡條件밑에 애쓰고 있는 같은 速記人이 있다는 것을 認識하시고 그들의 隘路點에 눈길을 돌려 주기를 協

會當局에 付託드리고 아울러 同職의 先輩도 많은데 이사람에게 紙面을 割愛하여 주신 「速記界」誌 諸位와 特히 梁源龍 兄에게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調達廳勤務>

- [註] OSROK: Office of Supply, ROK  
 WAIOP: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CIF. Cost Insurance & Freight  
 B/bond: Bid Bond  
 P/bond: Performance Bond  
 CQD: Custongery Quick Dispatch  
 B/L: Bill of Lading  
 FAS: Free Along Side

## 原 稿 募 集

다음 第5號는 3月末에 發刊됩니다. 여러분의 좋은 玉稿는 서슴치 마시고 2月末日까지 協會 宣傳部로 보내 주십시오.

- \* 表 紙 그 립..... 세로 가로 15센치정도
- \* 研 究 發 表..... 2百字 원고지 15~25枚
- \* 生 活 記 錄..... 2百字 원고지 12~18枚
- \* 隨 筆..... 2百字 원고지 6~12枚
- \* 回 想 記..... 2百字 원고지 12~18枚
- \* 詩 時調 其他 提言 등



# Computer 見 學 記

姜 瑞 弘

며칠前 土曜日 午後에 KIST 에 勤務하는 宗兄을 面會했다가 Computer 를 見學할 수 있는 機會를 얻게 되었다.

洪陵 Bus 終點에서 約 300m 쯤 걸어가면 KIST(韓國科學技術研究所) 正門에 이르게 된다. 正門을 막 지나서 수목원(外國產樹種林業試驗場)을 끼고 한참 가노라면 울창한 松林으로 둘러싸인 KIST 綜合 建物이 한 눈에 보인다.

建物 前面에는 넓은 垆地에 조그마한 연못이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가 깨끗한 잔디로 깔려 있어 季節의變化에 同化된 잔디는 마치 黄金의 주단을 펼쳐놓은 것같은 錯覺마저 들게하였다.

오른쪽으로 제 1 연구동 제 2 연구동을 비롯해서 建物들이 쭉 서 있고 왼쪽에는 本館이 있다. 이 본관건물 二層에 Computer 가 設置되어 있었다.

Computer 에 대해서는 門外漢이 되어서 專門的인 것은 要하지 못하고 常識的으로 들은바는 Computer 는 數式計算 事務組織 會計制度 豫算 資産 文書 管理 人事管理 등을 統計해내는 役割을 하는 機械라고 한다.

language 分野別로 보면 USASIC-FORTRAN 과 USASIC-COBOL 이 있는데 FORTRAN 은 數式計算을 하는 language

의 機種이고 COBOL 은 事務組織計算 會計制度 豫算 資産 文書管理 人事管理 등에 사용되는 language 의 機種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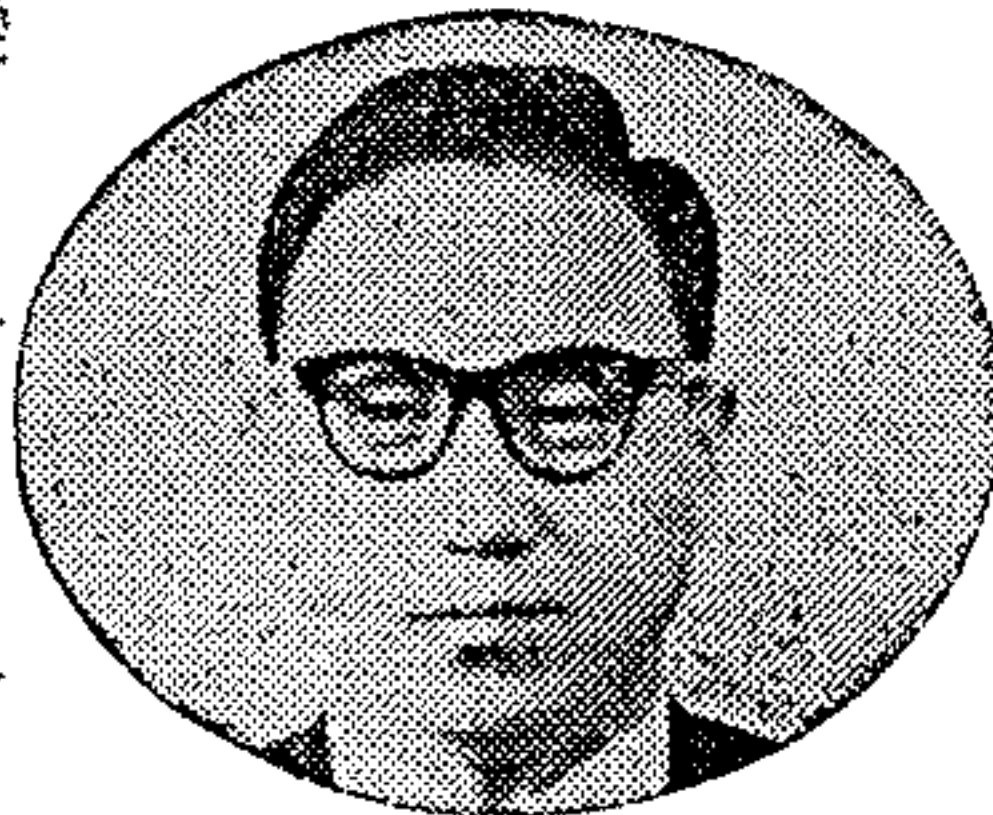
現在 各 機種別로는 IBM CDC UNIVAC 等 이러한 種類가 있는데 各 機種마다 조금씩 差異는 있지만 USASIC-language 를 使用하게 되면 어느 機種을 막론하고 다 들어맞는다고 한다.

Computer 를 使用하는 過程은 Coding 한것을 Coding-Sheet 에 모아서 punch 해가지고 機械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結果가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덮어놓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erro 가 없으면 結果가 금방 나오지만 erro 가 있으면 結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 Computer 가 裝置되어 있는 室內溫度가 正常的으로 섭씨 17度 18度로서 언제나 正常溫度가 維持되어야만 機能을 發揮할 수 있지만 그 以上으로 溫度가 上昇하거나 그 以下로 溫度가 降下할때에는 稼動이 不可能하다고 한다. 그래서 所謂「融通性없는 天才」라는 別名을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前에 한글을 읽고 외고 打字할 수 있는 Computer 가 開發되었다고 한다.



아직은 그 字型이 마치 한글 打字機 初創期の 字型처럼 썩 예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1分동안에 한글과 英文을 混合하면 4만800字를 찍어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는 그대로를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英文活字에만 依存하던 것을 한글化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Computer 를 使用할때 생기는 不便으로서 모두가 外國産이기 때문에 數字와 外國語(주로 英語)만 알고있어 英語로 찍혀 나온것을 한글로 翻譯 印刷해서 그 英語위에 붙여야만 되게 돼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給料計算한 것의 title이나 內容이 모두 英語로 찍혀나온것을 다시 한글로 印刷한 것으로 바뀌붙이니까 二重일이 되게 마련이란다. 그래서 Computer 가 使用할줄 아는 한글用語가 나오지 않는限 우리나라 Computer 界에는 어쩔 수 없는 障壁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을 느끼고 電子計算室長으로 계시는 成博士를 爲始해서 몇몇분이 研究한끝에 우선 1段48字씩의 6段짜리 한글活字 「체인」을 만들어 내었다고 한다.

이 「체인」에서의 한글의 配列은 政府가 制定한 「타이프라이터」의 4벌식 자판의 순서대로 했고 그 밖에 數字 의문부들의 記號와 英文「알파벳」活字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重要한 문제는 Computer 에 한글을 읽히고 記憶하게 하고 쓰게하는 한글의 論理를 꾸미는 것이었다고 한다.

英文으로는 1 line 으로 찍어나가는 것

을 한글은 받침이 있기때문에 2 line 으로 찍어나가게 했고 한글을 分解해서 前後關係를 상세히 指示해주는 方法을 마련하는데 2年동안의 고심끝에 한글 Computer 用語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여기에 Computer 核心體의 演算速度나 記憶容量은 한없이 빨라지고 커지고 있다고 한다.

中央演算裝置는 1백만분의 1초단위로 작업을 進行할 수 있고 1초동안에 백만번을 연산하는 記憶容量만 해도 從前에는 32K (3만2,000Word)이던 것이 98K (9만8,000Word)를 월수있다고 한다.

이번에 開發된 한글 Computer 는 中央演算裝置와 比較할바는 못되지만 일을 시키기 위해 人力裝置가 Card 를 읽히는 速度가 1분에 1,200장이고 演算結果를 찍어내는 印刷기의 速度가 1분에 1,200line (1 line 은 1백36자)으로서 1분에 16만3,200Word니까 이만 저만 빠른것이 아니라고 生覺된다.

끝으로 參考로 한마디 덧붙일것은 우리네 速記業務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研究果題의 하나인 말하는 그대로를 記錄할 수 있는 Computer 가 開發되었나 하고 機械에 依한 即時記錄의 可能與否를 알아보았더니 이번에 開發된 Computer 는 앞에서 說明한 바와같이 하나의 印刷過程에서 한글化로 開發된것에 不過하고 말하는 그대로를 記錄할수는 없다고 한다.

<國會速記課>

☆

☆

☆



# Hansard

楊 澈 在

## (2) 영국의회 민주주의와 Hans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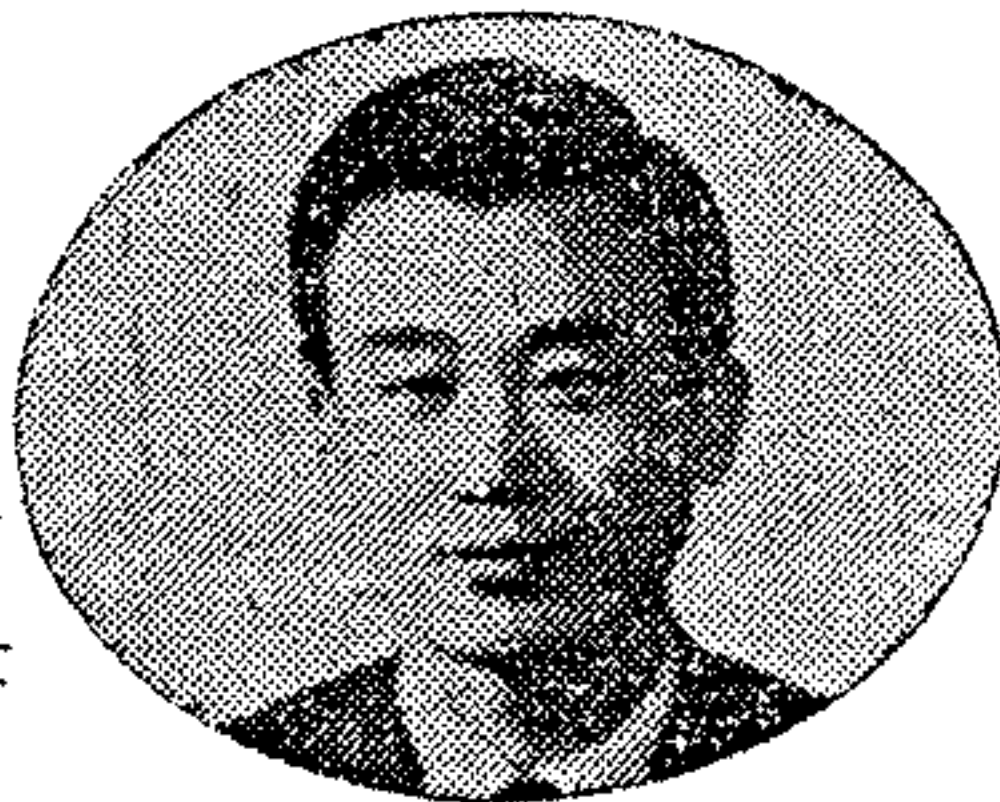
영국의회는 자유롭게 선거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선거민의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었지만은 선거민들은 이 형식적인 투표만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전부 행사한 것은 아니다.

즉 투표를 마치고난 선거민들은 선거후에 의회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감시할 권리가 있는것이다.

그들은 선거에 승리한 정당 및 의원의 정치활동을 통해서 선거공약이 과연 추진되고 지켜지고 있는가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 환언하면 선거민 각자는 스스로 선출한 의원이 자기의 이름으로 어떠한 것을 발언하고 있는가를 지체없이 알 권리가 있다. 여기에 의사내용이 완전히 선거민에게 주지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원칙이 정립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원칙을 만족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란 무엇인가? 물론 의원이 자기의 선거구에 내려가서 그 지방의 신문기자들이나 선거민과 회합하고 자기의 활동을 보고하는 방법도 훌륭한 방법으로써 많은 의원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민들도 이에 대단히 만족감을 갖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신용도로 본다면 Hansard 기록에 입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편적이고 지나치게 착색하며 Local 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신문보도기사의 경우는 어떨까? 의회의 심의는 언제나 수많은 신문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보도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것 뿐이다.

그들이 신문에 기고하는 경우 의원들의 보통 발언을 전재하는 방법을 피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원의 전 발언을 대표하는 확실한 뉴스성이 있는 짧은 문구만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문구가 없을 때에는 기사화 되지 않음으로써 의원들의 대부분의 발언은 빛을 못보기 마련이다.

물론 의원들의 발언이 선거민이나 일반 국민을 의식하고 행해졌다면 진지하고 성실한 토의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은 못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의원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파악하고 공과를 따져서 자기의 권리인 투표권 행사를 차기선거에 반영하고자하는 욕구가 있음으로써 집약되고 발췌된 신문기사로서는 의원들이나 선거민 양자 공히 불

만을 갖는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견지에서라도 의회민주주의 구현의 척도라고도 볼수 있는 보도의 자유, 회의 공개의 원칙면에 입각하여 의사 내용의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 즉 Hansard staff에 의한 회의록 작성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Hansard는 영국의 민주헌법을 지키는 필수불가결한 권능을 갖게 되었다」고 Hansard 협회의 멤버인 William Law 氏는말 함으로서 이 Hansard의 가치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Hansard 속기사가 Hansard 작성에 있어 어떤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록하고 그 편집자가 아무런 제약없이 이를 편집하여 인쇄에 넘기고 또한 Hansard를 일반국민들이 두려움이나 어떤 눈치를 보지않고 읽을 수 있는 자유를 갖고있는 동안에는 의회제도도 건전한것이며 반대로 의회가 가끔 비밀회의를하여 Hansard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든가 혹은 Hansard 속기사가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는다든가 함구령을 받는다든가 해서 Hansard가 변조된다면 그 나라의 의회민주제도에 일대 적신호가 울린다고 볼수있다라고 Willian Law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실로 영국에 있어서 오늘날 의회의 선전과 의원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Hansard만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기관은 없다. Hansard는 영국에 있어서 의회정치사를 엮는 사실(史實)기록의 가치외에 의사 내용의 보도라는 점에서 더욱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사족으로서 첨언할 것은 이 의회선전 방법에 있어서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처럼 의원들의 발언을 방송하거나 의회의 회의

광경을 T.V 방영하는 경우도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이러한 방송이나 방영방법은 첫째 영구적으로 남는것이 아니며 또한 전에 영국 하원 사무총장을 지낸 <길버드 캠페온>경의 말과 같이 이 회의의 방송 방영이 심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반국민을 의식하고 의원이 발언할 경우 그 발언에 몹시 고심하게 되며 따라서 미리 준비한 원고에 의하여 발언되는 수가 많음으로서 토의내용에 있어 그 박력을 잃게 되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은 토의를 좀먹는 수단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까지 있어 영국은 의회 방송을 거부하여온 하나의 이유로서 상기한 참다운 토의의 정신을 해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심지어 영국의회에서는 발언대에 일정하게 자리잡은 micro-phone을 통해서 발언하게 되면 토론에서 자유스러운 회의 분위기를 상실 자발성과 진실성의 결여로 의회의 참다운 목적——토론의 광장, 자유로운 의사 결정의 전당——을 달할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영국 의회의 이러한 판단은 현명한 진단이었다.

「뉴질랜드」의 의회는 회의 방송방법으로 말미아마 부작용이 일어나고 악용되는 수가 많아졌다.

의원들은 진지한 토의보다는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로마 원로원시절의 대연설을 하는 진기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것이다.

이리하여 영국으로서는 의회보도의 방법으로써 Hansard 방식 이상의 방법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더욱 깊이 갖게 되었다.



### (3) Hansard 의 작성

이 Hansard 는 영국의 상하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에 있어서 일언 일귀 빠짐없이 기록하는 Hansard staff(의회속기사)에 의해서 작성된다.

이 Hansard staff에 의한 속기는 1인당 15분간씩 속기하며 이것이 한시간 이내에 번문되고 10분간의 교열을 거친 뒤 다음 날 아침에 인쇄 공표된다.

이렇게 해서 발행된 Hansard 의 모양은 백색 「카바」의 책자로서 종횡이 각각  $9\frac{3}{4}$  인치,  $6\frac{3}{4}$  인치가 되는 크기며 표지에는 Official report 라고 표제가 있고 바로 밑에 괄호속에 Hansard 라는 부제가 쓰여 있다.

또한 이 Hansard 를 작성하는 속기사들은 하원에 속기사 18명 Editor(편집자) 2명 Assistant editor 1명 Sub editor 1명 도합 22명이며 여기에 6명의 Typist 가 번문작업을 돕고 있다.

이 editor 들은 모두 속기사 출신이며 이들 속기사들은 최저 40세 이상되는 사람들이고 Typist 는 말을 들으며 매분 80~100 단어를 타자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다.

이 Hansard Staff 의 업무과정의 특색은 속기집무시의 교대 방법으로서 처음 속기하는 자가 主속기사가 되고 다음 차례의 속기사가 副속기사가 되어 主속기사가 15분간 기록하는 사이에 副속기사는 의원들의 이름, 어려운 지명, 전문용어등을 「메모」하고 「체크」하여 主속기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것이다. 따라서 교대시간이 되면 主속기사가 교대하여 나감에 따라 副속기사는 主속기사가 되고 다음

차례의 속기사가 새로이 副속기사가 되어 전자의 경우처럼 업무가 진행되는 조직으로 짜여 있다.

이렇게 해서 속기원문을 기록한 Hansard 속기사는 번독할때(녹음 취입이나 Typist 에게 속기원문을 읽어줄때) 특히 문법이나 말의 의미 문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게 마련이다. 이들은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의원의 발언중에 명백한 미스가 났을때에는 신중한 주의력을 가지고 정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Hansard 속기사들의 업무는 항상 폭주하고 이에 겹해서 그 기록의 중요성이 점점 증하여 그 정신적 부담이 가중됨으로 말미암아 어떤때는 Hansard note(속기 note)를 사무실밖 「타임스」강으로 내던져 번문을 회피한 속기사도 있으며 「하리·아산단」이란 속기사는 임종직전까지 완료하지 못한 업무를 그의 아우인 「프리데릭」에게 再口述 번문케 하여 임무를 완수한 일도 있다.

이 「아산단」의 업무에 대한 충실성은 감사의 마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상기되고 이 이야기는 아직도 의회의 기자석에서 생생하게 전하여지고 있다.

Hansard 를 작성하는 Hansard staff 들의 의견은 우수한 속기사는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민첩하고 국어와 사람들의 이름을 잘 이해하고 바로 내용을 어그러뜨림없이 번문하고 또 조정하는데에 있어 자유로이 용어를 구사하고 고속도의 속기를 할수 있는 직업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Hansard 의 속기사들은 속기실력만을 중시하지 않으며 번문에 있어서 비판적 판단을 가할수 있는 능력자들이어야 한다.」로 집약되고 있다.

#### (4) 결 어

Hansard 는 어떠한 「센세이쇼나리즘」에 도 관계하지 않고 어떠한 의식적 개작이나 착색도 배제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기사보다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강조하는 인쇄體도 사용치 않는다. 이리하여 Hansard staff 나 Hansard 는 下院議長과 똑같이 객관적인 것이며 공평한것이라고 알려져 왔다.

참으로 「의회가 영국의 세론을 비추는 것이라면 Hansard 는 의회의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것이다」라고 William Law 가 말하듯 누구든 Hansard 를 구입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것이 의회에 대하여 가장 잘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영국사람들은 여기고 있다.

Hansard 에는 의회의 모든 논점이 명료

하게 밝혀져 있는 것이다.

이 Hansard 의 정확성에 대하여 1949년 2월17일 「크리프톤·브라운」 의장이 원내에서 행한 발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Hansard 는 특히 정확 무비한 것이다. 그들이 틀린다고 하는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다. 그들은 단순히 속기할뿐만 아니라 의원의 성명을 알아야 하고 의사 절차나 안전처리등에 있어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속기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누구나 Hansard 속기사가 될수는 없는것으로 나는 마음으로부터 이들 속기사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Hansard 의 의회에 대한 기여도를 잘 나타내 주고있는 이상의 표현으로서 이 글을 맺는다.

<總務部長>

### 「速記界」廣告料金表

1 色度印刷・1 回分の 페이지 單價

表 四・20,000원

表 三・15,000원

本 文・10,000원

※ 製版費는 實費만을 받습니다.

2分の 1 페이지廣告도 받습니다.

會員은 3割 控除해 드립니다.

但 文字廣告에 限하며 銅版使用일경우는 坪數에 따라 實費加算합니다.



# 外國速記界視察記 (下)

— 日本을 보고 —

安 仁 榮

## 衆議院事務局(記錄部)

6月23日 大使館의 吳彩基課長의 案內로 衆議院事務局에 到着한 것은 午前 10時였다.

渉外部의 茂木課長께서 우리를 案內하여 衆議院議事堂과 委員會를 開催하는 會議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參議院事務局渉外課長의 案內로 參議院議事堂도 돌아보았다.

때마침 國會는 閉會中이라 會議光景을 볼수 없어서 遺憾스러웠다.

내가 關心을 가지고 있는 速記士席은 演壇 밑에 配置되어 있었는데 出入口는 밑에서 階段을 통해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從前에 우리 國會에서도 한때 그런式으로 構造되어 있었던바 傍聽席이나 議席에서 볼때는 좋은 印象이 아니었다.

會議室中에서 第一 넓은 豫算委員會에 들어 갔으나 閉會中이라서 그런지 책상 배열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速記士席도 없었다.

議事堂內 視察을 마치고 어느 자그마한 事務室에 들어갔더니 7名의 職員이 우리를 待期하고 있었다. 모두 우리들과 面談할 事務局職員들이었다.

나는 議事部職員 두사람을 別途로 만나서 궁금하고 알고싶은 事項들을 알아보기로 했다.

나와 對話할 사람으로는 衆議院記錄部 一課의 伊達重八郎 課長補佐와 片岡幹夫 二課課長補佐였다. 그들은 미리 發送했던 設問書에도 여러가지 點에 對해서 親切히 說明해 주었다. 그 內容은 먼저 다녀온 金鎮基氏의 報告內容과 別로 다를 것이 없었다.

四課一所(速記者養成所)로 되어있는 記錄部는 部長以下 192名의 定員인데 이中 缺員이 3名 있어서 現在는 189名이었다.

여기에는 部長 1名 課長4名 所長 1名과 行政職 30名이 包含되어 있어 速記職職員은 153名으로 이中에는 女子職員이 46名이나 되었다.

그 人員을 課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課長	速記職	行政職	合計
1 課	1名	41名	12名	54名
2 課	1名	39名	6名	46名
3 課	1名	29名	3名	33名
4 課	1名	39名	5名	45名
速記者養成所	1名	5名	4名	10名
計	5名	153名	30名	188名

※ 部長 1名 計 189名

※ 副部長은 1課長이 兼任.

執務分擔을 보면 第1課는 速記運營外에 庶務와 編輯, 調査를 擔當하고 第2課는 庶務, 調査, 第3課는 庶務 第4課는 庶務, 調査, 運營을 擔當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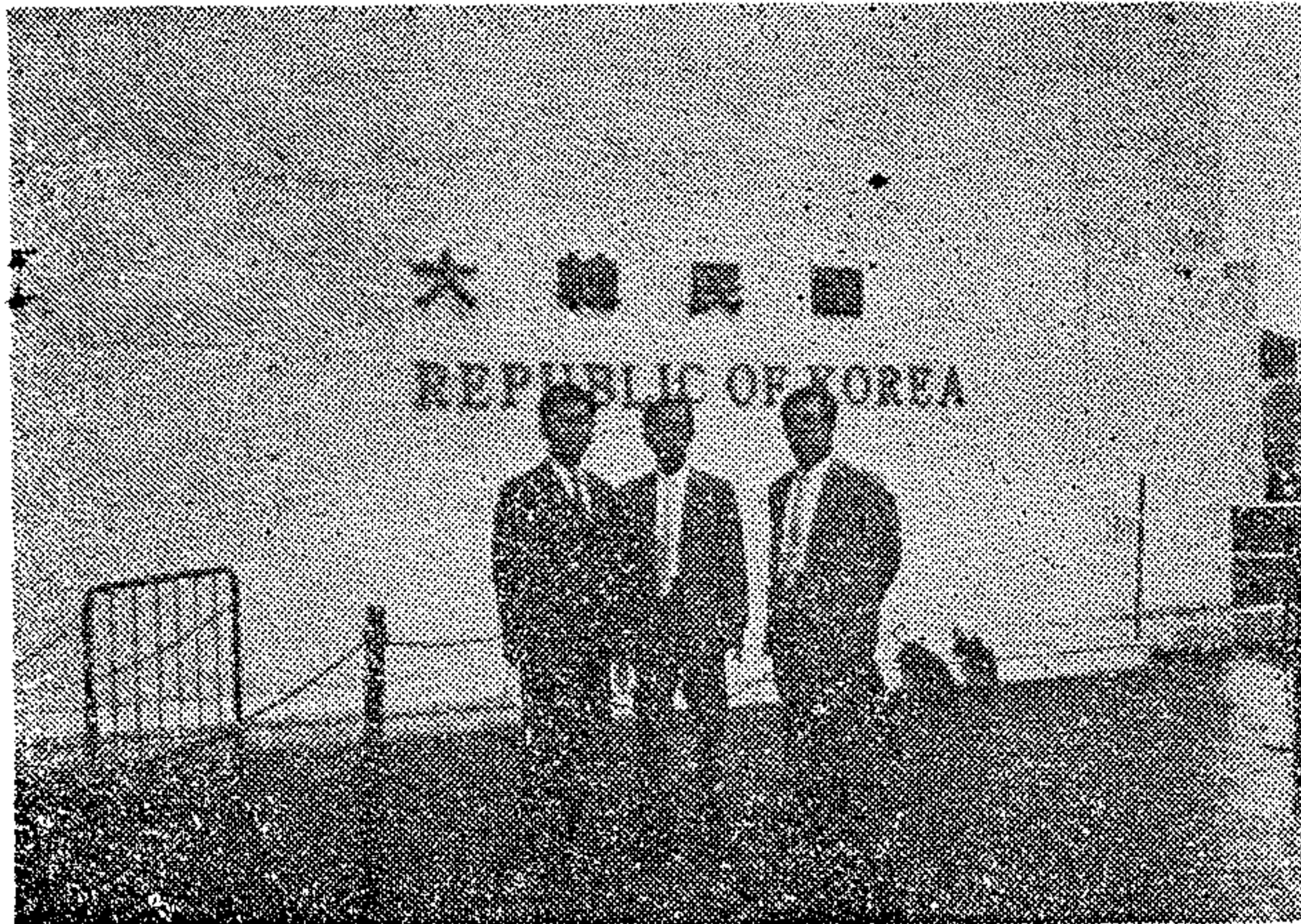
速記執務에 있어서는 速記運營板에 依하여 自動配置를 하는데 1.2.3課가 한팀이 되고 第4課는 別途의 팀으로 되어 執務하고 있다.

速記執務는 本會議는 5分交代 委員會는 10分交代로 하고 있으며 議院運營(우리나라의 國會運營)은 速記監督 2名과 速記士 2名 計 4名이 專擔하고 있다.

議院運營을 除外하고는 速記副監督까지 速記實務를 擔當한다. 速記運營板이란 60組가 出番順에 依하여 執務하도록 되어 있으며 集計는 第1課의 速記監督 한사람이 擔當한다. 會議가 있을때 먼저 2個組를 配置하여 記錄이 끝난 組가 다음 出番順의 組에게 委員會名이 써있는 명패를 넘겨주면 會議에 出場하는 組는 運營板에 自己名牌를 걸고 出場하게 되어 일일이 指示가 없어도 제대로 循環이되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組編成은 每年 1月에 正規적으로 全面改編한다.

會議時間은 1969年 6月 分館에 委員會



會議室이 增設되어 業務量이 많아졌다는 바 最高 하루에 61時間50分을 記錄하였다는 것이다.

會議錄原稿는 本會議인 境遇는 2日後 委員會는 5日~7日後에 提出한다는바 本會議와 特委의 會議錄은 當日로 常任委員會의 原稿는 翌日까지 提出하고 있는 우리나라 國會速記業務가 進一步하고 있음을 自負하고 싶다.

速記課運營에 있어서 우리와 두드러지게 다른 制度는 速記監督官制度로서 本會

議와 16個常任委員會 그리고 現在 8個의 特別委員會에 速記監督 1名 또는 2名이 專擔해서 會議에 參覽하여 會議의 經過와 記錄하기 어려운 部分을 메모하였다가 速記士의 原稿作成이 完了되면 該當監督이 校閱을 하게 된다. 이는 速記士의 誤聽誤記 등으로 因한 記錄未備點을 補完하여 正確한 會議錄을 發刊하는데 가장 適切한 方法이라 하겠다. 速記監督의 定員은 29名이나 現在는 27名 있다.

錄音은 本會議와 豫算委員會 其他 特別



한境遇 速記補助用으로 吹込한다.

記錄部에는 調査係가 있어 記錄部가 必要로하는 各種 資料를 蒐集하고 있으며 새로운 用語나 쓰기어려운 말들을 閉會期間中에 速記士들이 拔萃한 것을 綜合하여 參議院事務局과 協助하여 國會會議錄用語集을 發刊한다.

또한 新聞에 報道되는 各種重要事件도 事件別로 “스크랩”하였다가 速記士들의 記錄業務의 參考에 供한다.

速記職員의 處遇에 있어서는 國會職員의 給與等에 關한 規則에 依하여 行政職 給料表와 速記職 給料表가 區分되어 各各 다른 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이에 依하면 一般行政職보다 速記職의 給料가 優待되고 있음을 알수가 있는데 그 例로 行政職으로 採用되어 들어온 職員의 最下俸이 22,130圓의 俸給을 받는데 比해 速記職으로 採用된 速記士補의 最下俸은 29,980圓이다.

給料制度에서 各等級의 差異는 甚한 便으로 速記監督으로서 127,840圓까지 받는 가하면 監督中에는 行政職 2 等級最高俸인 129,510圓을 받고있어 課長級待遇를 받고 있다.

對話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듯 正午가 지났다. 午後에 다시 繼續하기로 하고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했으나 사양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남에게서 待接을 받지 않고 待接하지도 않는것이 禮儀인것 같아 더 勸하지 않았다.

午後 2時 伊達課長補佐의 案内로 記錄部事務室을 돌아보았다.

閉會中인데도 職員들은 熱心히 일을하고 있어 閉會中에도 무슨 일이 많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會議가 없어도 그동안에 記錄했던 것을 整理하고 또 어려운 用語를

拔萃하는 등 할일이 많다는 것이었다.

내가 恒常 關心을 가지고 있던 運營板에 對해서 仔細히 說明 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같이 첫째組가 會議場에 들어가서 몇時間씩 기다려야하는 狀況下에서는 實施하기가 어려운 制度라고 생각되었다.

記錄部事務室은 第1, 第2, 第3 課事務室이 한줄로 붙어있고 第4 課는 떨어져 있었다. 課長室도 別途로 있지않고 한事務室에 같이있는데 책상배열을 보니 別로 넓은 便이 못되었다.

別途로 마련된 面談場所는 「레스트랑」의 한 구석이였다.

여기에 參席한 사람은 石渡第二課長과 落合監督 그리고 伊達, 片岡課長補佐였는데 記錄部實情을 親切히 說明해 주기도 했으나 우리의 國會實情에 對해서도 많은 關心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여서 오히려 主客이 전도된 것같은 느낌이였다. 答辯해도 좋다고 생각되는 몇가지에 對해서 答辯 하고 내가 가지고 간 몇個의 資料도 주었다.

必要한 資料를 要求했더니 給料表에 對해서는 部長의 承認을 받아야 하겠다 해서 며칠後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자리를 떴다.

### 參議院事務局(記錄部)

參議院記錄部를 訪問하는 것은 當初豫定에는 없었으나 大使館에 要請을 했더니 參議院事務局과 交渉이 되어 7月2日 午後2時에 記錄部第一課를 訪問하라는 連絡이 왔다.

約束한 時間보다 40分이나 일찍 到着했기에 議事堂周圍를 한비퀴 돌고 2時 正刻 受付에 訪問한 뜻을 傳했더니 얼마後 두

사람의 女職員이 나와서 記錄部事務室까지 案内해 주었다.

速記第一課의 上田利一課長은 눈섭까지 하얀 老人이었으나 따로 마련한 面談場所까지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가면서 始終 상냥스럽게 웃음지으며 親切히 對해 주었다.

面談場所에는 各課에서 나온 네사람의 職員이 기다리고 있었다.

參議院記錄部도 亦是 衆議院과같이 四課一所(速記者養成所)로 되어있으며 部長以下 175名인데 이中에 速記職은 134名이 있으며 速記者養成所 研修生 5名도 包含되어 있었다.

이 研修生은 一定期間이 끝나면 正式職員으로 任命되기 때문에 記錄部職員名單에도 들어 있었다.

參議院記錄部の 速記職員 134名中에는 男子 96名 女子 38名이 있으나 女子의 數는 漸次 減少될 것이 豫想된다고한다.

그것은 參議院速記者養成所 學生募集은 男子에 限하고 速記職採用은 公募를 하지 않고 速記者養成所出身으로 充當하기 때문이다.

速記職員의 勤務年數는 最高 38年勤務한 사람이 있으며 年令으로는 60이 넘는 職員이 있는데 參考로 衆參兩院速記職員의 勤務年數別과 年令別을 比較해보면 다음과 같다.

速記執務는 2人 1組가 本會議는 5分交代 委員會는 10分交代로 하고 있으며 議院運營도 衆議院과는 달리 全員이 執務하는데 本會議와 같이 5分交代로 한다.

速記士配置도 速記運營板制度가 아니고 速記監督 한사람이 擔當하여 職員을 시켜서 出場者에게 指示한다.

參議院의 現業組는 56組인데 第1課 第

分 類	人 數			
	衆	參	計	
勤 務 年 數 別	30年以上	21	8	29
	25年 "	10	7	17
	20年 "	24	37	61
	15年 "	33	43	76
	10年 "	22	12	33
	5年 "	18	8	26
	5年未滿	25	19	44
	計	153	134	287
年 令 別	60 代	1	2	3
	50 "	26	14	40
	40 "	26	28	54
	30 "	59	65	124
	20 "	41	25	66
	計	153	134	287

2課 第3課를 一群으로 하고 第4課는 事務室位置上 別途의 群으로 하여 各各 그 群의 出場順에 依해 出場하는데 當日 豫定會議數가 5個以下인 때는 速記第一課 第二課 第三課 第四課 順으로 執務하고 會議의 狀況에 따라 半數(速記第一課와 速記第三課 또는 速記第二課와 速記第四課) 勤務를 實施하는 境遇가 있다.

午後 5時半以後 會議數가 2個以下로 確定되었을 때는 半數를 勤務시키고 5分交代로 하며 午後 8時以後 會議數가 3個以下로 確定된 때도 半數殘留 執務한다. 또 休日に 委員會가 있을때 委員會 2個以下인 때에 限해서 半數勤務를 實施한다. 따라서 半數勤務인 때는 別途循環順番別로 하고있다.



夜間會議 또는 徹夜會議時도 衆議院과는 달리 女職員도 男職員과 똑같이 勤務한다.

組編成은 10月 1日 現在로 改編하는데 2年에 1回씩 大移動을 한다.

會議時間 統計를 보면 衆議院보다 적은 便인데 大體로 衆議院과는 3對 2의 比率이라 한다.

速記監督官制度는 衆議院과같이 委員會別로 專擔되고 있으나 各課長도 本會議 또는 委員會配置가 되어있는 것이 特異하다고 하겠다.

錄音은 本會議와 豫算委員會 其他 特別한 境遇 速記補助用으로 吹込하고 委員會數가 14個以上일 때는 錄音爲主로 하여 速記士交代는 하지 않는다.

그밖에 速記課運營制度面에서는 衆議院과 마찬가지로 午後 4時가 조금 지나서 面談을 끝마쳤다.

上田課長은 우리나라 速記業務에 對해서 많은 關心을 가지고 質問하고 必要한 事項을 速記文字로 메모하고 있었다. (끝)

<國會速記課 第3係長>

消

息

○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定款 第18條 2項에 依한 1970年度 定期總會가 1970年 12月 30日 午前 10時 國會特別委員會會議室에서 開催되는바 附議案件은 다음과 같다

1. 會務報告
2. 1970年度 決算承認의件
3. 1971年度 豫算案및 事業計劃 承認의件
4. 定款改正의件
5. 任員改選의件

○ 協會 機關誌「速記界」編輯 및 取材記者로 다음 두 會員이 任命되었다

河 良 培 記者

吳 준 根 記者

(1970年 11月 1日字)

# 速記同人記 (下)

姜 駿 遠

## ◇ 通音과 頻度

速記의 外的素材는 演述者의 發言內容과 그 聲音이고 內的 素材는 그 速記法의 말소리 分析과 頻出度 集計다. 各法式마다 받침을 線 또는 符號로 쓰기로 한 差異나 語尾·助詞를 文字線 또는 符號 點等·各異하게 쓰는 體系의 差異에 따라 그 構想이 同一할 수는 없지만 아래에 語尾와 助詞는 除外한 한 集計를 보이니 子·母 받침에 照하여 通音과 頻度대로 잘 處理하기 위한 한 데이터를 보인다.

### ◇ 子音(100%)

ㅇ ㅎ · =24  
ㄱ ㅋ ㆁ =13  
ㅅ · ㅆ =13  
ㅈ ㅊ ㅈㅈ =13  
ㄷ ㅌ ㄸ =10  
ㅂ ㅃ · =9  
ㅁ =7  
ㄴ =6  
ㄹ · ㄺ =5

### ◇ 母音(100%)

ㅏ ㅑ ㅓ ㅕ ㅗ ㅛ =31  
ㅜ ㅠ ㅡ ㅝ ㅞ =22  
ㅣ =16  
ㅜ ㅠ ㅝ ㅞ =13  
ㅏ ㅑ ㅓ ㅕ ㅗ ㅛ =12  
ㅡ =6

### ◇ 받침(99%)

ㄴ =26	} 鼻腔音	ㄱ =11	} 閉鎖音
ㅇ =24		ㅂ =2	
ㅁ =7		ㄷ =4	
} 57%		} 17%	
ㄹ =25	流音		

그런데 去號에 보인 子·母音의 亮度와 이번의 頻度와는 無關으로 斷定해야 하는 한편 通音과 亮度는 依例히 聲音群으로 묶어서 一致하게 됨을 알 것이다.

## ◇ 先驗的인 人間의 速記本能

速記는 普通文字의 發達된 形態나 그렇지 않으면 太初에 速記가 發生하여야 할 것을 普通文字의 量産과 理性의 晦盲에 늘려 거의 人類의 文字使用 2,500年後에야 速記가 제자리를 차지했다는 見地가 速記의 先驗性 究明이다. 先驗性이란 對象에 關係함이 없이 對象 認識의 先天的 可能性을 밝히려는 認識的 態度라고 하겠는데 筆者의 論據는 아래와 같다.

筆者가 어른들의 글씨가 表意나 表音이 아니라 音素나 音節이 아니라 아무런 前提認識도 지니지 않은 白紙狀態의 幼稚園에도 안간 어린이 3名에게 「아버지·어머니·언니·아빠」를 써보라고 시켰던바 各 어린이가 線向이 同一하지는 않았지만 ①모두 直線인 것. ②1線1音節인 것. ③長短區分은 無意識的이지만 方向은 意識的인 것 등이었다. 샘플을 百名으로 늘여 60%以上 이러한 抽出統計가 나타나면 速記는 人間의 先驗的인 本能임이 證明될 것이다.

위의 어린이의 普通文字에 더럽혀지지



않은 1劃1音節의 創字는 읽기 위한 점에 主目的이 있었고 쓰기 위한 文字——說書 눈을 감고 몇번 쓰더라도 別로 달리 써지지 않는 軌道的인 速記의 源圖가 漢數字「四」字의 草書形에 숨어 있다는 것을 發見하고 왜 일찌기 中國인들이 人類 最初의 速記法을 考案하지 못했는가를 안타깝게 생각했다. 運筆自然(natural notion)을 主張한 Gregg 式의 曲線源圖인데 漢字草書「四」字가 바로 그것임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셈이다.

速記線 가운데 曲線을 이끌어내는 源圖로서 pitman은 正圓을, Gregg은 橢圓을 提示하였다. 이에 關聯하여 두가지 圓에 關하여 그機能面에서 死圓·生圓의 概念을 導入하여 보았다. 즉 사람의 손가락·손목 팔목이 協同하여서 그리는 圓形은 決코 正圓보다는 決定的으로 橢圓이 妥當하다는 것이다. 正圓은 宗教的인 想像的인 聖像의 後光등에 쓰이고 死圓이며 不動勢·休止를 뜻하고 橢圓은 生圓으로서 天體의 自轉·公轉軌道가 모두 이에 屬하고 魚類의 몸뚱이·植物의 잎들조차도 流線의 橢圓, 그러므로 橢圓은 動勢이며 不息으로 速記速動的, 더우기 文字를 읽는 機關인 眼形, 읽는 範圍인 視界 또한 橢圓이다. 橢圓萬歲라고나 할까.

#### ◇ 速記的 語法의 開發

한 國語의 語法이 速記的인 것과 普通文字的인 것이 따로 있을 수 있지는 않겠으나 한 語法·文法을 速記的으로 有用토록 開發하는 일은 語音을 分析하는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며 마치 가지땀풀을 헤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한글학자나 國文法界에서 1950년에 이르러 「에+關하여·에+對하여」의

「關하다·對하다」가 動詞가 아니라 「助詞」라고 發表하였는데 速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35年代에 當然히 助詞임이 發表되었고 더우기 英語의 경우는 이미 100年前에 will be able to go...의 助動詞+前置詞+動詞가 化石化한 英語의 띄어쓰기에 革命을 일으켜 거침없이 1個의 語形으로 連書處理하는 길을 開發하였던 것이니 速記란 基本文字의 簡劃과 더불어 이 速記的 語法의 發見에서 文字 使用法의 劃期的인 發展을 가져온 것이다.

우리말의 速記的 語法은 各法式이 數說한 軌道에 따라 서서히 發達하고 있는데 그例로서는 速記的 붙여쓰기의 初步인 ① 形式各詞 것·가령·때문·따위...에서 시작하여 ② 일어서고·속아넘어간다면...등 複合用言의 徹底한 1語形化. ③ 概念의 意識的 活用으로 「잡고」가 「잡히어 지셨겠으니...」에 이르는 受動·遂成·敬稱·特相의 차례로 整然히 잇닿는 補助用言의 處理는 서투른 英語速記法의 흉내나 日本語速記法의 累用등으로는 到底히 開發의 端緒조차도 얻기 어려운 境地니 꾸불꾸불한 基本文字쯤 만들어 「이것이 내速記法입네」할 時代는 지낸지 오래임을 느끼게 한다. ④ 慣習語活用の 擴充을 꾀할 것이라고 믿는다. 「에+關하여·에對한·에+있어서·에+이바지하도록」에서 「를+무릅쓰고·로+하여금·지+않으면+안되...」등 先行하는 助詞들과 不可分의 關聯이 慣習的으로 일어나는 順生語를 이의範圍로 採擇하느냐는 三昧境이었다. ⑤ 「타고난 性格·알고있다면·먹고나서...」를 「고」다음에 오는 單말들이니 띄어쓰자式은 速記에서는 잡꼬대라고 하겠다. 몇몇 辭典에도 이미 英語로 收錄된 「美國의 소리·鐵의 帳幕의 「의」가 끼어도 하나의 뜻이면 한

날말이고 따라서 붙여쓰기로 되어있음을 想到할 것이다. 速記에서는 이 날말의 뜻의 範圍를 넓혀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속의 것·웃음웃소리·無識의 所致…」는 물론 異論이 없겠고 「最大의 意味單位를 한 語形으로」라는 目標에서 「죽은者是 말 이 없다」를 어느만큼 붙여쓸수 있는 速記 法인가 比較研究 課題가 되겠다.

助詞나 語尾 本來의 뜻이 終結的이 아니고 連結的인 것은 速記에서는 優先的으로 語間에 連書되어야 하겠는데 「의·으로·와」와 「며·면서·고·고서·다가려·려…」등이고 더 나아가서는 連結的이 아닌 助詞라도 「너와 나의·내가 너를…」등도 무슨 速記的 形式이 나타날 것 같기만 하다. ⑥ 頻用接尾語의 「공부한다·우물쭈물하더니·헛된…」등 「하·되」의 助動詞·依存形容詞들이나 指定詞 「이·이어」는 學說로는 그 存否가 끝이없지만 速記에는 聞即直記라 아니 쓸수 없어 特定措置가 있어야 하겠고 그 同發音성과 獨立詞가 아니라는 點으로는 「먹이고」의 使役態·「번쩍이다」의 副詞의 形容轉成의 「이」들도 모든 同規例로서 써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 ◇ 側面 定名: 順側과 逆側

手筆 速記는 로마帝國特代의 「타이로」가 用器畫의 幾何正圓을 引用 說明한데서 英 피트먼式도 이幾何用語로서 速記源圖를 說明하였는데 事實은 不用器로서 記線하는 手筆速記는 이幾何概念에게 禍를 입어 手筆記線의 獨自的 認識 發展에 적지않은 禍를 입고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대지 크게 禍를입은 部分은 ①線은 點의 延長이다. 하는 定理인데 記線文字에서는 線은 線이오, 點은 點이지 延長이 니 縮少니 하는 抽象觀念을 지닐 必要가

없는 일이다. 또 幾何에서 幅이 없다면 線은 뚜렷이 幅이 있는 것이다. 한 字線을 區分할 때 正側·負側하여 「+ -」概念으로 나누는 것은 速記에서 不合理한 것이다. 피트먼은 字線을 直曲不問 다만 「上下前後」로만 나누었고 (1966年刊) 그릭式은 頭·下位置로만 나누고 있다(1965年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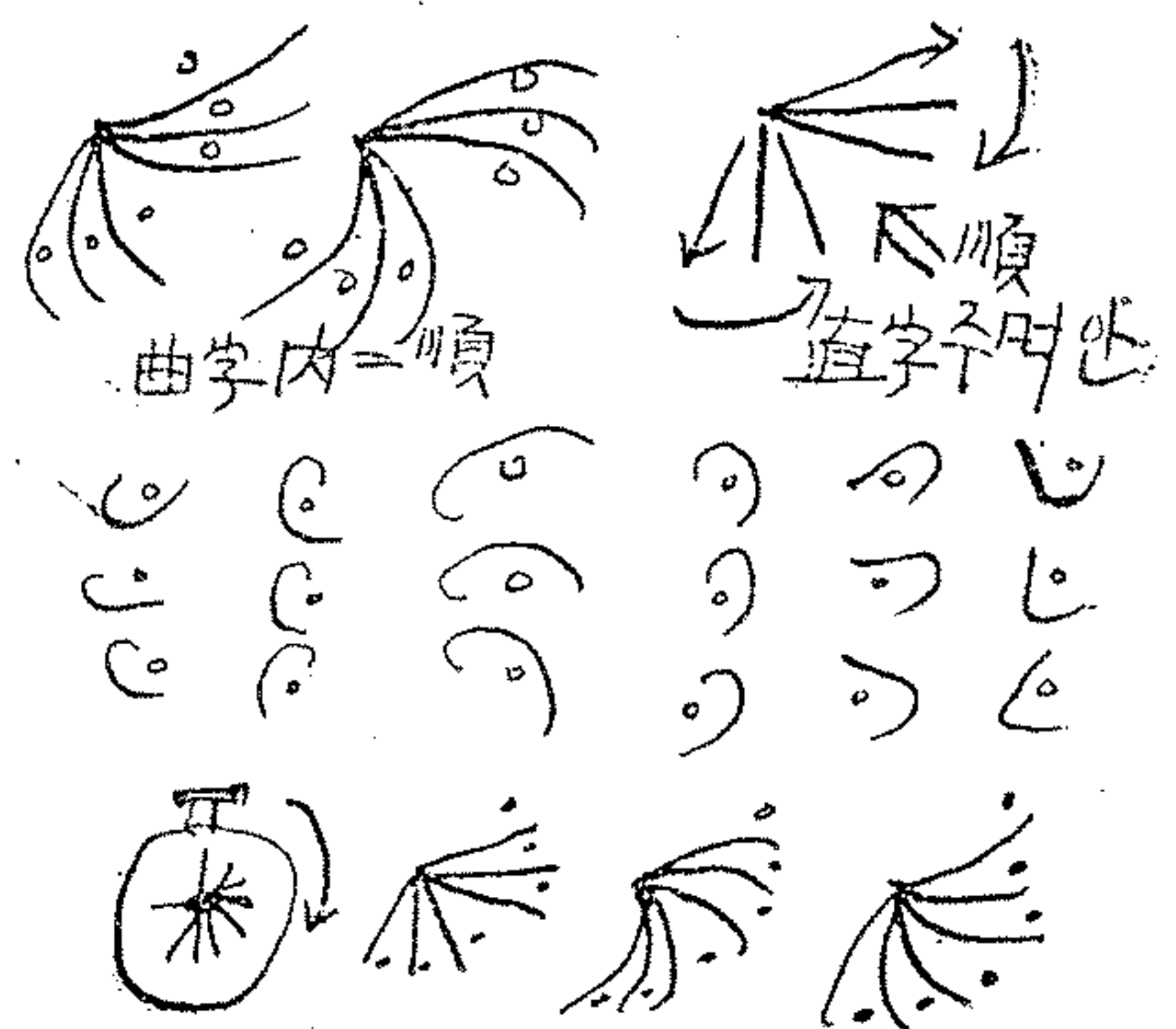
筆者는 手筆速記에 가장 合理的인 側面 認識을 「쓰기에 便한 屬性」을 基準으로 나누어 順側·逆側으로 나누었는데 아래와 같이 規定하였다.

① 各個文字의 發音明記用의 極近位置를 2分하여 字屬의 順·逆側으로 한다.

順側 { 曲字=內  
直字=右向上·下向左  
逆側=그 對應側.

② 位置를 特定語로 삼을때 極遠位置를 2分하여 字沿順 逆側으로 한다.

順側 { 直曲不問時計바늘 도는 차례의 위쪽  
逆側=그 對應側



③ 가령 直線+直線의 시계바늘돌리기에서 連線과 線末重疊의 경우에도 主먹안을 順側으로 삼고 그對應側을 逆側으로 삼음은 記線作業의 極히 自然스러운 概念



이다.

이 逆書操作은 過去 普通文字에서도 取한바 인데 「永」字의 第3劃의 끝을 빠치는 「갈고리」뿐이고 餘他 7個劃은 모두 順書인 것에 想到할 것이다.

그런데 速記文字에서는 ◎피트맨式에서는 幾何正圓을 빌어字向을 풀이하였기 때문에 不可避하게 45度向을 上向·下向으로 나누어 說明하지 않을 수 없었고 實際로 15度右上과 20度右下로 쓰고있으며 ◎크로스式은 아예 해 떠오르는 直線圓光을 빌어 筆向을 明示하였고 ◎筆者는 手筆·速記에서 筆向이 字向을 構成하고 決定한 것이라면 時計바늘 돌리기(Clockwise)가 右向群 下向群으로 나누어지고 易學易書임을 確認하였다. 다시 曲線을 어떻게 組織하고 說明하느냐가 남을바 曲狀基準으로 筆者 主張대로 익힐 것이냐 매크 로어式으로 第一曲線의 便度를 基準으로  $m^1$  과  $m^2$  式으로 익힐 것인지는 그 言語의 第一音節語의 頻度가 決定할 것이다.

順書·逆書에 兼하여 一般 文字에는 逆讀도 있으니 얼핏 생각나는 것은 英語의 the apple 과 the school 의 「디」「더」는 뒤 單語를 본 뒤에야 앞 單語를 옳게 읽어야 하고 無意味 無滋味의 無는 왜 意味·滋味의 머리에 와야 하느냐는 輸入語라는 點에서 語衆의 承認을 얻은 結果인 것이다.

#### ◇ 修文主義·逐語主義

自己 생각을 自己스스로 語彙와 表現을 골라 文章을 쓰는 경지가 아니고 自己 비위에 맞건말건 들리는 그대로를 文字化해야하는 것이 速記業務다. 그러므로 남의 말을 自己의 具體的 聲音으로 符合도 시키고 뜻을 理解도 하고 記錄도 해야하는 一人三役을 도맡는 일이니 더우기 原稿도 없이 非標準語를 써가며 퍼는 長廣舌을 克明히 一言一句 써야 할때의 要領은 다음 두가지가 있을수 있다.

◇ 修文主義 : △ 아, 저, 아마, 마아... 등 問投詞는 內容과 無關한 것은 省略한다. 아니 쓰리라고 마음먹지 않았더라도 善意의 失書症(?)이 종종 이들을 默殺한다. △ 서울에 사는 친구가—아니 釜山에 사는 친구 말입니다...등 發言訂正은 訂正된 後者만 記錄. △ 討論을 했는데 이렇게 討論을 하다가보니...등 強勢를 피하는 것도 아닌 重言復言은 不記. △ 그 사람으로 말하면 말씀입니다...등 插晦語는 다 빼 버리고 「그사람은」으로 만도 可能.

逐語主義 : 修文을 一切 許諾하지 않는 錄音代用의 速記錄에는 注文者의 嚴格한 要請에 依하여 行하는 것이다. 心理研究用·病理學用·審問錄등.

<本協會指導委員>



# 會 務 日 誌

70. 9. 30 會誌第3號 發刊
70. 10. 1~3 光復25週年記念速記展示會開催(一般公開)  
場 所：國立公報館  
參觀人員：9,967名
70. 11. 3~12. 2 言論機關 從事者에 對한 速記講習實施
70. 11. 14 速記展示會 座談會
70. 11. 23 文化公報部에 아래와 같이 4/4分期 國庫補助金申請  
① 4/4分期 事業計劃書 4部  
4/4分期 豫算內譯書 4部  
4/4分期 補助金請求書 3部  
② 3/4分期 事業實績報告書 1部  
3/4分期 國庫補助金請算書 1部
70. 11. 23 「速記界」記者로 河良培, 吳存根 會員을 任命
70. 12. 1 祥明女子高等學校 速記講習 2次完了書 接受
70. 12. 5 4/4分期 補助金指令書 接受
70. 12. 5 第14次理事會  
定款審議小委員會構成
70. 12. 8 國政監查隨行速記士座談會
70. 12. 11 定款審議小委員會
70. 12. 12 4/4分期 國庫補助金 222,000원受領
70. 12. 14 東亞日報速記講習(言論機關講習)
70. 12. 14 文化公報部에 事業變更承認書 提出.

<總 務 部>



光復25周年紀念

速記展示會

特

集

主 催 社 團 法 人 大 韓 速 記 協 會  
後 援 文 化 公 報 部  
朝 鮮 日 報 社

(이 展示會는 政府의 補助事業임)

# 人 事 말 씀

田園이 금빛으로 물드는 收穫의 季節에 여러분의 健勝을 빕니다.

이제 우리는 成年韓國으로서 光復 25 周年을 맞이하여 祖國近代化와 民族中興의 旗幟를 더욱 높이 들었습니다. 바로 經濟的 復興과 燦爛한 文化建設이 우리의 課題로 登場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分野에 걸쳐 各 個個人의 頭腦啓發과 힘찬 意慾, 그리고 技倆의 研磨가 近代化에 拍車를 加한다는 事實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記錄文化의 重任을 맡고 能率의 尖端을 걷고 있는 速記인들이 서로 모여 速記學術 展示會를 開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能動的으로 過去의 速記史를 研究하며 現狀의 速記術을 改良하고 未來의 機械速記 部分까지도 「텃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技藝展示는 새로운 藝術의 한部門을 形成한 것이 아닌가 보고 싶습니다.

學術의 展示는 때때로 固型的이어서 자칫 興味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둘러 보시면 반드시 有益한리라 믿습니다.

항상 우리 國會를 비롯하여 各處에서 일손을 멈추지 않는 이들 速記士들이 研究한 솜씨를 鑑賞하시고 督勵를 付託합니다.

社團 大 韓 速 記 協 會  
法 人

會 長 崔 致 煥



## 速記展示會를 開催하며

人間的 思想感情의 表現手段으로서의 言語의 不便을 除去하고자 한데서 人類는 文字를 發明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文字는 意思를 가다듬고 매만져서 論理的이고 體系있게 記錄하는 代身에 많은 時間을 虛費하게 되어 人間的 意思(言語)를 即時 그대로 記錄하지 못하는 欠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欠陷을 打開하기 위하여 苦心한 結課 考案해 낸것이 言語를 따라 記錄할 수 있는 速記文字인 것이며 速記文字의 發明으로서 無形의 言語를 有形의 文字로서 即席에서 빠짐없이 記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日帝의 쇠사슬에서 解放된 光復 25 周年을 記念하는 行事로서 政府의 補助로 文化公報部와 朝鮮日報社의 後援을 얻어 速記展示會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速記가 實用된지 20餘年! 成年을 맞아 보다 알차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서 國會內에서와 그리고 一般公開展示會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展示되는 모든 作品의 製作은 專門家에 의하여 製作된 것이 아니고 現職 速記士들이 餘暇를 틈타서 製作한 것입니다. 多少 內容이나 作品製作에 疏漏한 點이 있더라도 널리 諒解하여 주시기 바라며 未洽한 點은 질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速記展示會를 위하여 陰陽으로 도와주신 國會事務處 當局에 感謝를 드리며 文化公報部 當局과 朝鮮日報社의 後援에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理事長      李      東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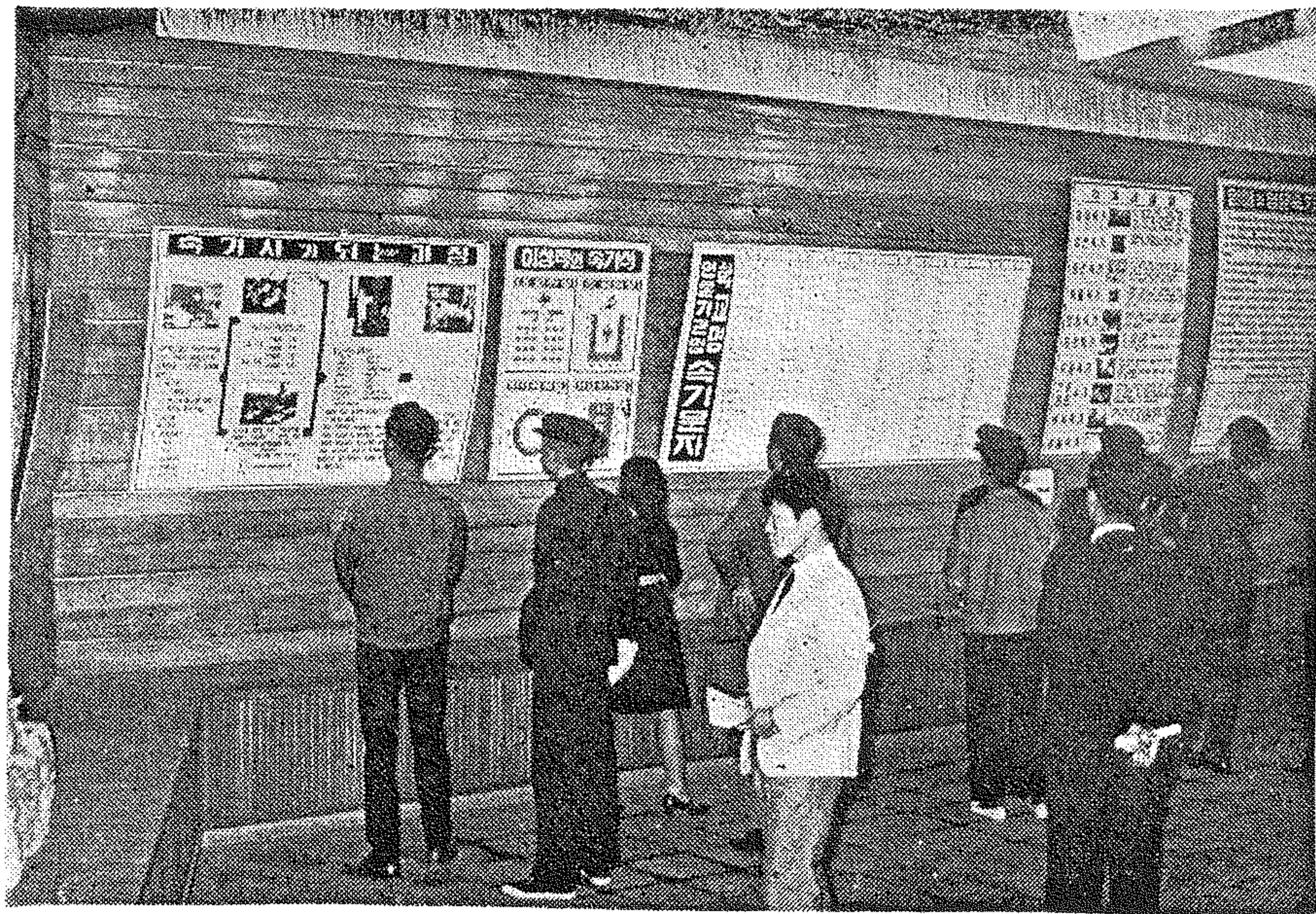
## 展 示 目 錄

- ◎ 速記略史 (國內·國外)
- ◎ 速記 原理圖
  - 逸波式·高麗式
  - 東邦式·世鍾式
  - 議會式·姜駿遠式
- ◎ 速記의 基本文字
  - 國內：高麗式·姜駿遠式
  - 東邦式·世鍾式
  - 議會式·逸波式
  - 韓國式
  - 國外：Gregg 式(美)
  - Pitman 式(英)
  - 早稻田式(日)
  - 岩村式(日)
  - 衆議院式(日)
  - 參議院式(日)
  - Duployéet 式(佛)
  - 統一式(獨)
  - Gregg 式(터키)
  - Aimeparis 式(스위스)
- ◇ 速記文字에 의한 肖像畫 1
  - 朴正熙大統領閣下...國會速記課 金鍾壽
- ◇ 速記文字에 의한 肖像畫 2
  - 李孝祥議長閣下...國會速記課 蔡康熙
- ◎ 速記教育 進度(議會式)
- ◎ 速記士가 되는 過程
- ◎ 한글과 速記文字와의 比較(東邦式)
- ◎ 速記의 活用
- ◎ 速記略字 및 略法例
- ◎ 理想的인 速記席

- ◎ 記錄上의 隘路
- ◎ 한글의 使用頻度 順位
- ◎ 法式別 速記文字
- ◎ 速記하기 어려운 경우
- ◎ 速記士의 分布와 勤務年數 및 年令對比
- ◎ 國會會議錄 作成過程
  - 一本會議 會議錄을 中心으로
- ◎ 國會會議錄 配付處
- ◇ 發言速度
  - 國會議員, 各部長官, 著名人士——
- ◇ 國會議員의 最長發言 時間
- ◎ 美國議會의 速記
- ◎ 英國議會 速記業務
- ◎ 書藝 1 .....國會速記課 金允洙
- ◎ 書藝 2 .....國會速記課 徐秉運
- ◎ 速記文字에 의한 刺繡...國會速記課 金明式
- ◎ 協會 成長의 발자취
- ◎ 協會의 事業實績
- ◎ 速記士들의 課外活動
- ◎ 國內外 速記文獻
  - 本協會
  - 國會 速記士養成所
  - 東邦速記學院
  - 姜駿遠氏
  - 高用培氏
- ◎ 速記 補助器具
- ◎ 速記界의 展望
- ◎ 70年度 協會 主要事業概要

} 所藏





# 가계부의 애로





# 한글과 속기문자와의 비교

##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인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섬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 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염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제의 신익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영 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홍일 조국의 완성을 내다보며 신념과 금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 의 슬기를 오아 풀기신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Handwritten notes in cursive script, likely a student's reflection or commentary on the text above.

	한글	속기문자
기록취수	1883	239
기록시간	68.5초	18.22초

# 한글과 속기문자

### 고 려 식

### 강 준 원 식

### 동 병 식

Handwritten Korean text in the '고려식' column.

Handwritten Korean text in the '강준원식' column.

Handwritten Korean text in the '동병식' column.

### 새 종 식

### 의 위 식

### 일 파 식

Handwritten Korean text in the '새종식' column.

Handwritten Korean text in the '의위식' column.

Handwritten Korean text in the '일파식' column.



# 속기하기 어려운 경우

1. ...

2. ...

3. ...

4. ...

5. ...

6. ...

7. ...

## 한글의 사용비율순위

지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ㅌ	ㅍ	ㅑ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문	교	부	2	5	3	6	9	10	4	1	7	11	14	13	12	8									
서	정	국	3	10	1	7	8	9	5	2	4	11	13	15	13	6	12	14	19	16	19				
일	파	식	2	6	3	10	8	9	4	1	5	11	14	13	12	9									
연	구	회	2	7	5	8	10	9	6	1	3	11	14	12	13	4									
평	간	순	회	2	7	3	8	9	10	4	1	5	11	14	13	1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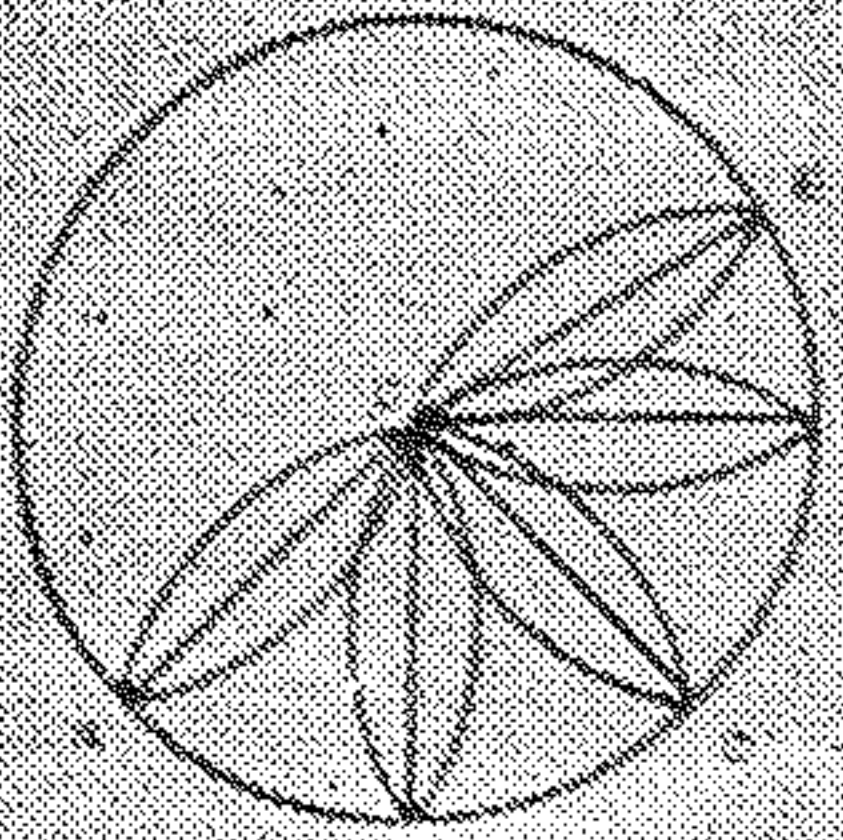
문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ㅈ	ㅊ	ㅋ	ㆁ	ㄷ	ㅌ	ㅍ	ㅑ	ㅕ	ㅗ	ㅛ	ㅜ	ㅠ	
문	교	부	1	9	3	7	5	8	6	10	4	2													
서	정	국	1	14	4	8	3	12	5	18	6	2	7	9	16	13	10	14	11	16	14				
일	파	식	1	14	4	8	5	12	6	17	3	2	9	7	18	13	11	16	15	10					
연	구	회	1	14	3	9	5	13	6	17	4	2	8	7	15	10	12	18	16	11					
평	간	순	회	1	15	3	9	5	11	6	17	4	2	8	7	19	17	19	18	14	13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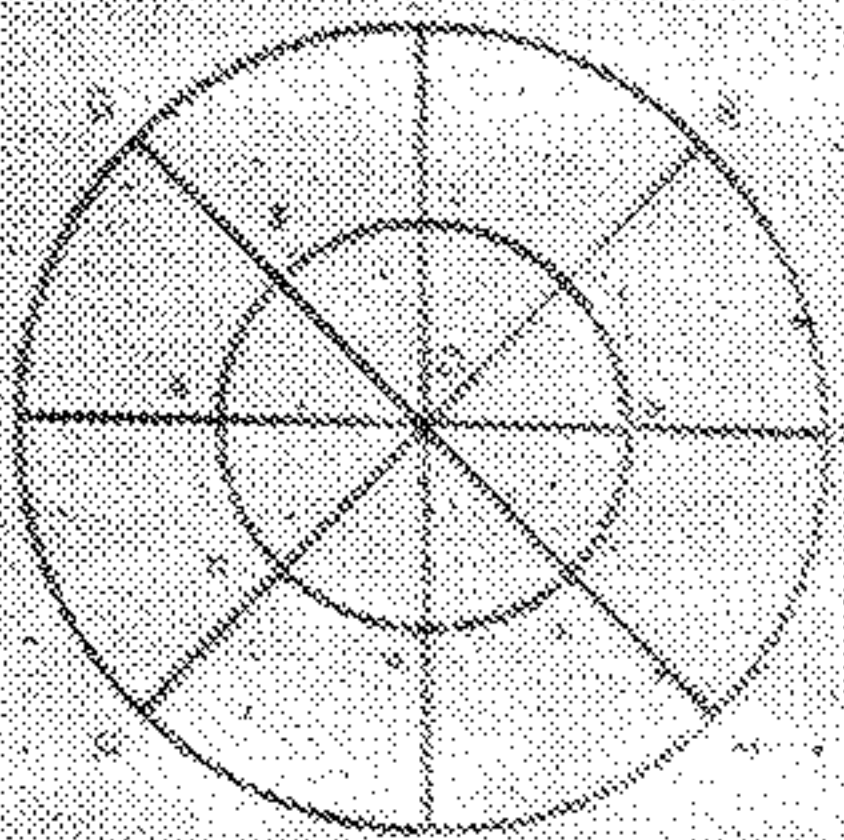
문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ㅌ	ㅍ	ㅑ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문	교	부	2	10	7	14	8	5	3	1	4	9	13	12	11	6								
서	정	국	4	1	10	3	5	6	7	2	9	10	14	10	13	8								
일	파	식	4	1	10	2	5	7	6	3	12	13	14	9	11	8								
연	구	회	6	1		2	6	7	4	1														
평	간	순	회	3	2	10	5	6	7	4	1	9	12	14	11	1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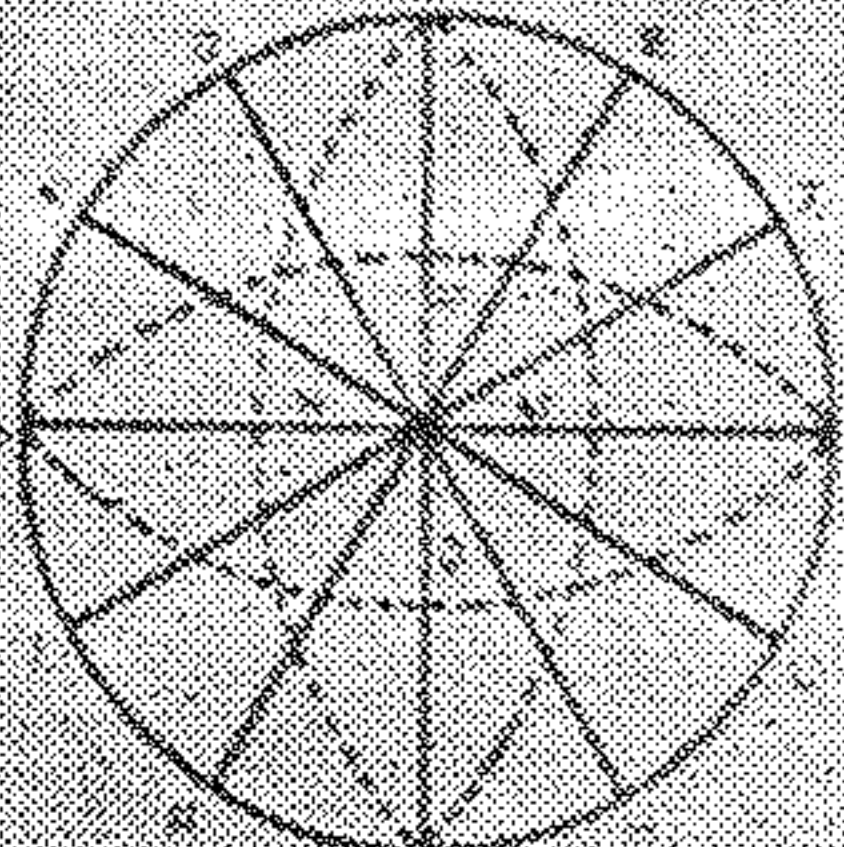
삼 피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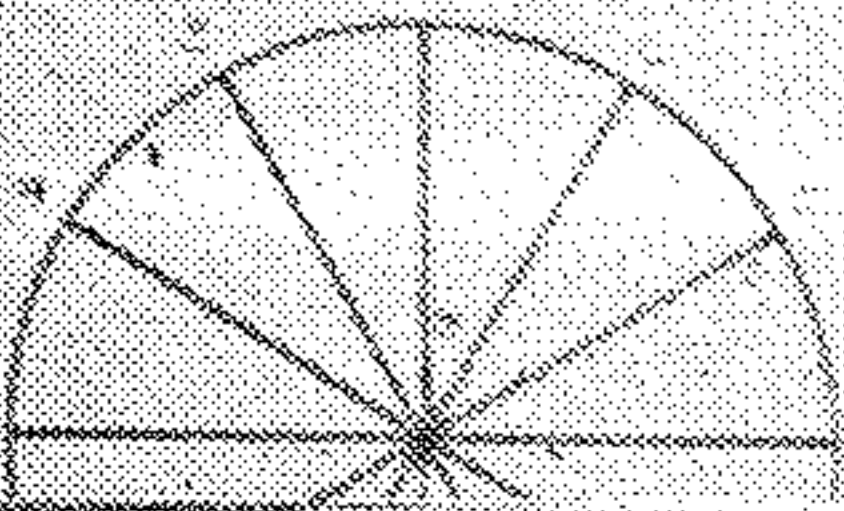
구 리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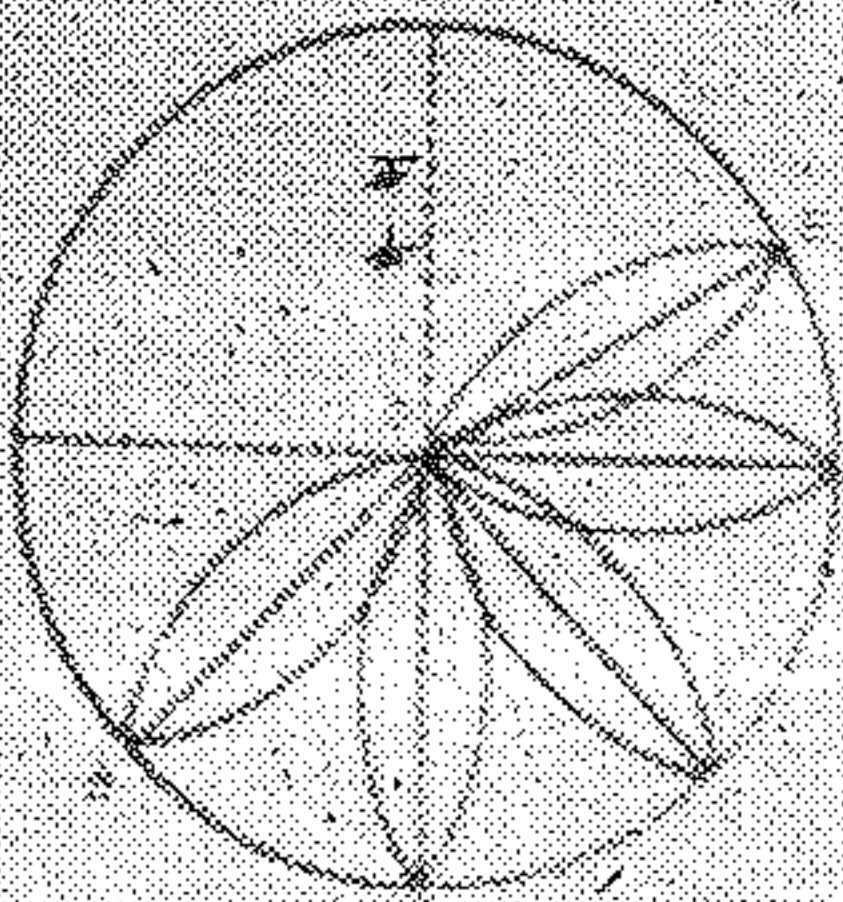
삼 립 스



세 립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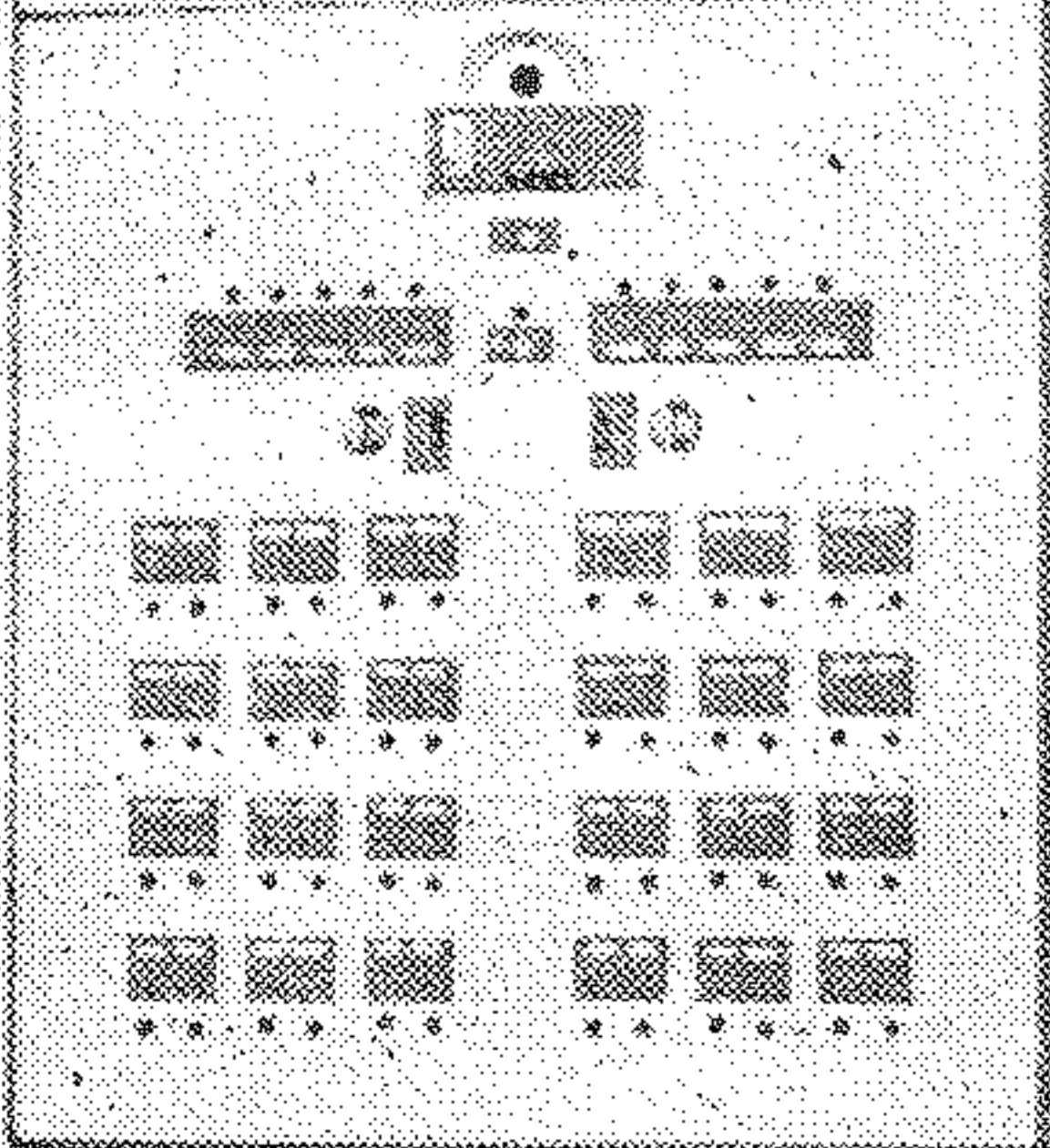


의 의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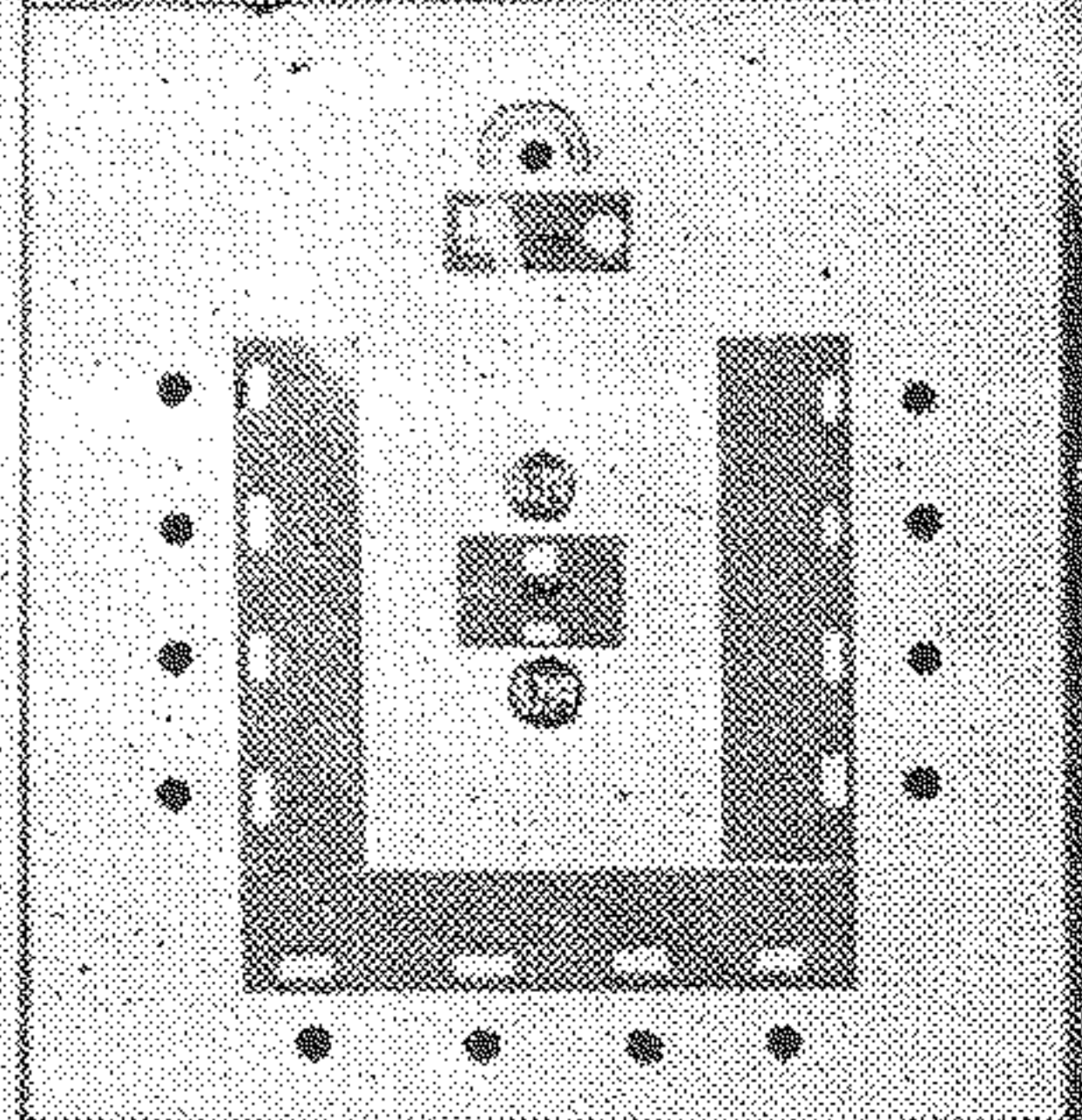


# 이상적인 속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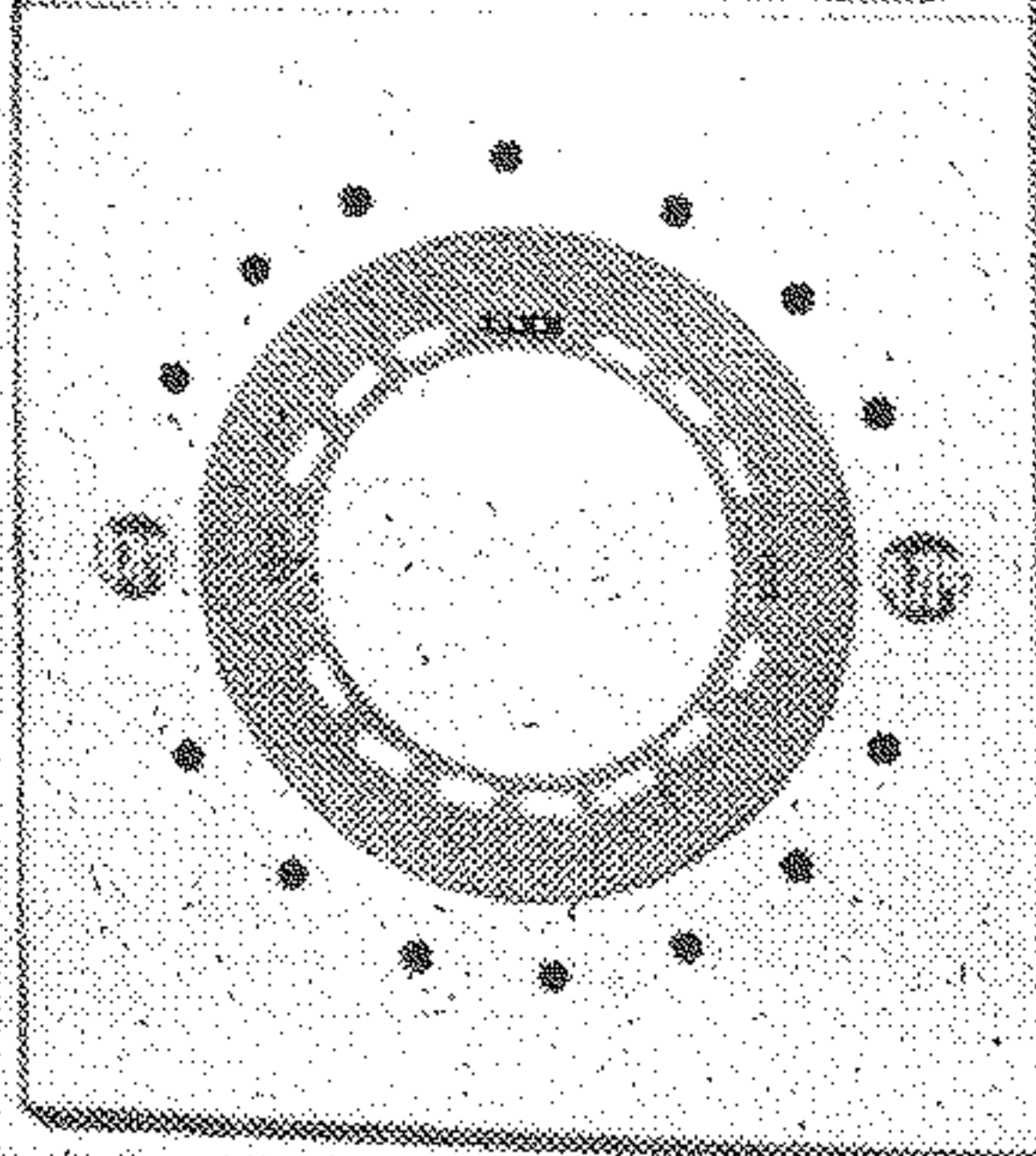
## 대학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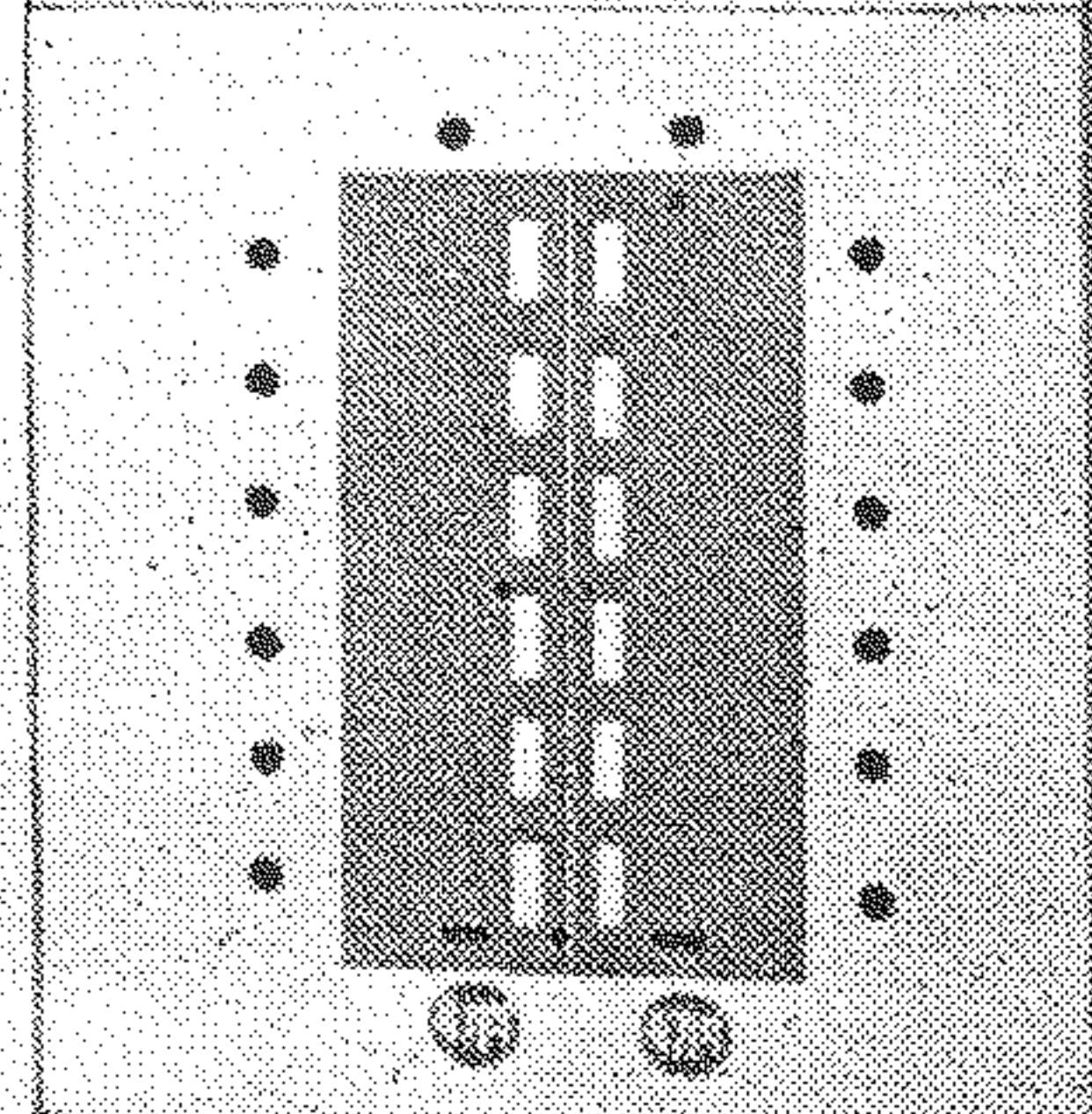
## 소회의장



## 원학회의장



## 자담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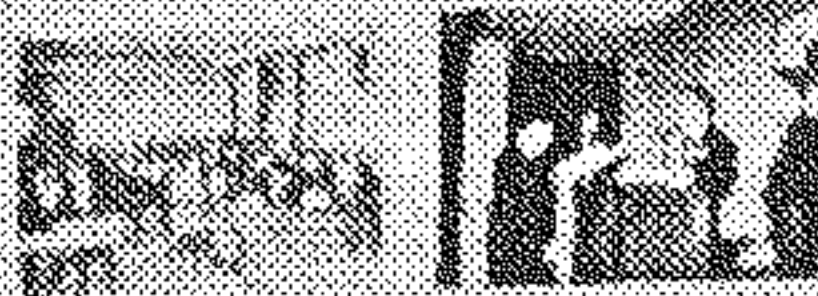








# 협회성장의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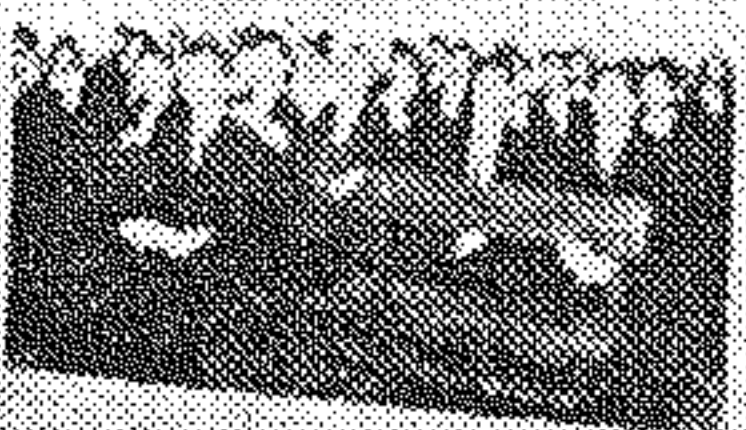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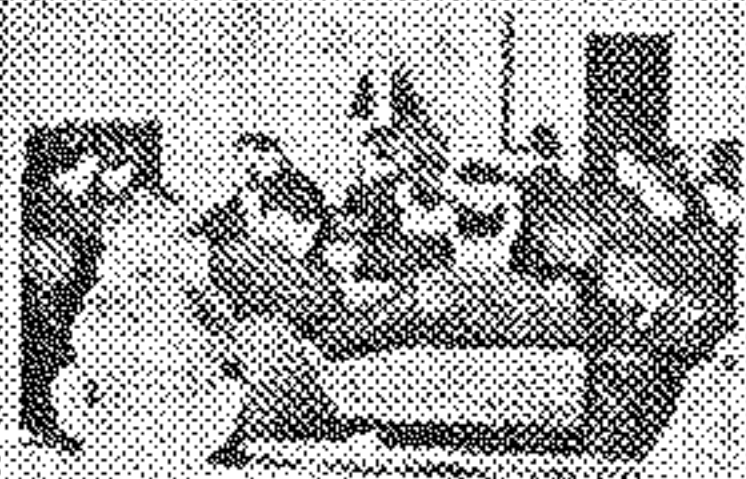
협회 창립총회 모습



사업발전계획을 위한  
간담회 모습 (1968년 4월)  
국립독거사상업소에서



제1회 정기총회 모습  
국립독거사상업소



## 속기의활용

회의속기



각 기관간의 각종회의 중중요한 주제를  
회의 중중요한 것의 대안내용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특히 국외 회의록은 회의사항 기  
록으로 더욱 중요하며 신속속기로서 기록 가능함

강연속기



경제발전의 중요성인 및 새시대의 내용을 기  
록하는 것은 신속속기로서 기록 가능함

공판속기



60, 60년경 회의 중중요한 것의 대안내용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특히 국외 회의록은 회의사항 기  
록으로 더욱 중요하며 신속속기로서 기록 가능함

취재속기



각 기관의 기밀하고 신속한 기사취재는 신속속기  
취재속기로서 기록 가능함 회의록 중중요한 것의  
기록 200자 정도의 신속속기로서 기록 가능함

좌담속기



회의록의 내용을 위한 좌담속기로서 기록 가능함  
회의록으로 기록 가능함 회의록 중중요한 것의  
기록 200자 정도의 신속속기로서 기록 가능함

강의속기



주요 강연내용의 기록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급우  
회의 기록을 속기함  
기록 200자 정도의 신속속기로서 기록 가능함

저술속기



각 기관의 저술내용의 기록을 받아 속기하는  
것을 할 수 있음  
회의록 중중요한 것의 기록을 받아 속기하는  
것을 할 수 있음

전화속기



전화속기로서 기록 가능함 회의록 중중요한 것의  
기록 200자 정도의 신속속기로서 기록 가능함

비서속기



각 기관의 비서내용의 기록을 받아 속기하는  
것을 할 수 있음 회의록 중중요한 것의 기록을  
받아 속기하는 것을 할 수 있음

생활속기



생활속기로서 기록 가능함 회의록 중중요한 것의  
기록 200자 정도의 신속속기로서 기록 가능함



# 速記展示會를 바치고,

## — 參 席 者 —

李 東 一 (理 事 長)  
 申 世 華 (事 業 部 長)  
 楊 澈 在 (總 務 部 長)  
 金 鍾 壽 (作 品 製 作 委 員)  
 蔡 康 熙 ( " )  
 金 敬 萬 ( " )  
 朴 炅 植 ( " )  
 金 善 弼 ( " )

司 會 : 梁 源 龍 (宣 傳 部 長)

速 記 : 河 良 培 記 者

日 時 : 1970年11月14日

場 所 : 中 興 樓

司會 바쁘신중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난번 本協會主催 文化公報部·朝鮮日報社後援으로 開催되어 各界의 讚辭와 人氣를 모았던 「光復 25 周年紀念 速記展示會」의 産婆役을 맡았던 여러 製作委員들을 모시고 製作과 展示過程에 있었던 여러가지 숨은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展示會를 總主管한 理事長께서 이 展示會의 年釋과 意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세번째의 展示會

李東一 먼저 이 作品製作에 手苦해 주신 製作委員 여러분에게 다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速記展示會란 一線速記人들의 實務面·學術面 또는 國內外文獻·資料등을 集大

成하여 이를 平坦化 一般公開함으로서 速記의 大衆化 내지는 速記人口 增大라는 協會基本事業과 直結된 事業의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이번 展示會는 우리나라에서 세번째 열린것으로 1950年 2月 當時 國會가 中央廳에 있을때와 1958年10月 現國會의 원휴게실에서 열려 두번열린 일이 있지만 그 規模나 資料蒐集面 또는 法式別 參加面 一般關心度로 볼때 그 어느때에 견줄수 없는 盛大하고 完璧한 展示會였다고 分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展示會는 政府補助事業으로서 財政的인 뒷받침을 받았다는 點에서도 그 意義가 컸으며 1次展示會(9月 7日~10日 國會院內展示)에 1141名, 2次展示會(10月 1日~3日 國立公報館)에 9967名 都合 11,108名이란 豫想外의 觀覽者를 動員

했다는 것은 期待밖의 大成果라고 할수 있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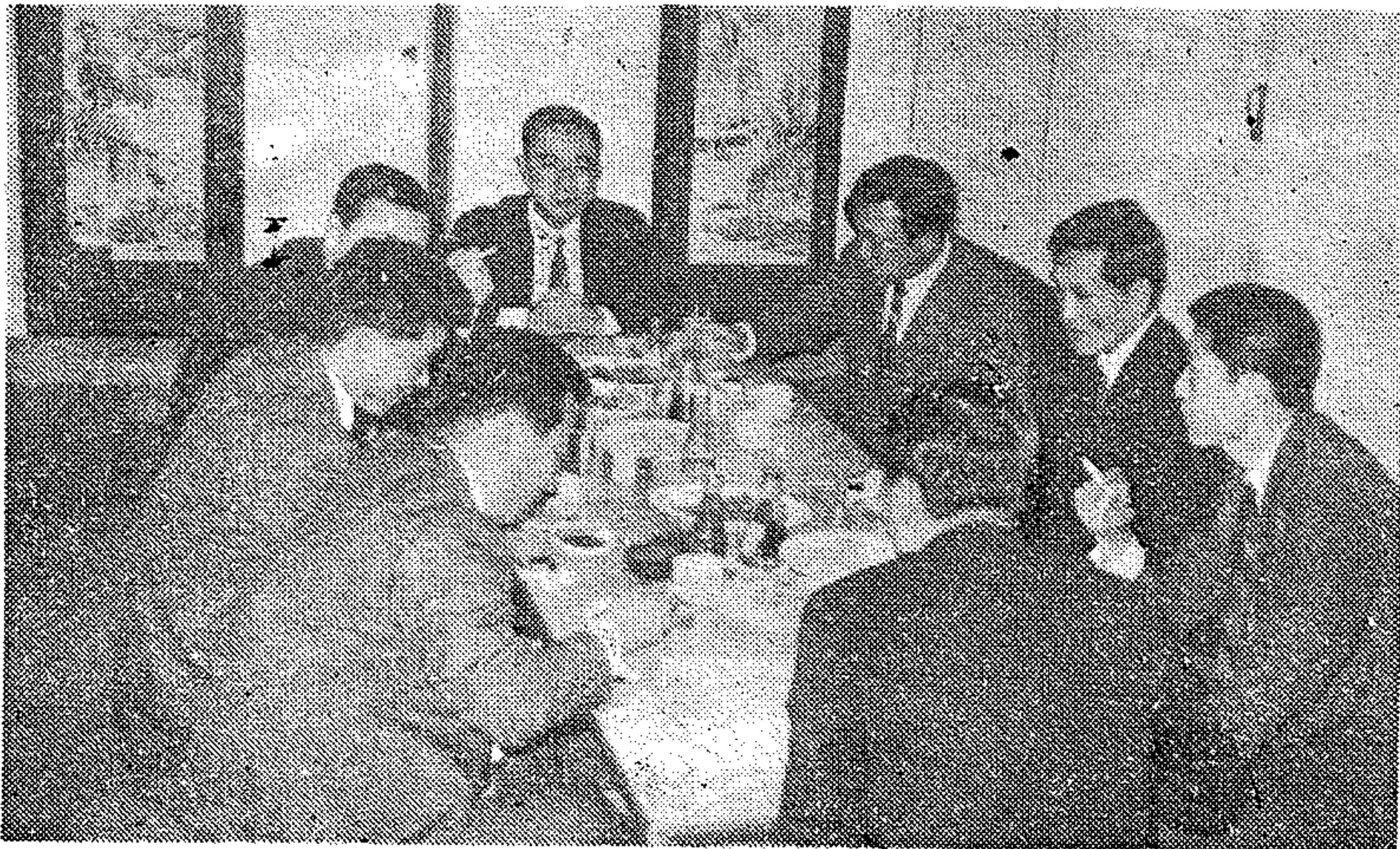
司會 애당초 作品製作委員의 選拔經緯에 대해서……

申世華 어디까지나 速記士의 손으로 製作한다는 原則밑에서 製圖·차트·肖像畫·設計·表具·木工·施設·電氣·寫眞 등 各分野에 걸친 숨은 人材를 찾아 이를 開發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읍니다. 왜냐하면 速記士가 이 分野의 「프로」가 아니고 조그만 素質만 보여도 이를 發掘 開發 製作해야 했기 때문입니니다. 처음엔 國會速記士 80名中 20餘名이 發掘되

었으나 結局 거의 脫落돼 5名(金鍾壽·蔡康熙·朴旻植·金敬萬·金善弼)의 製作委員이 選定된 것입니다. 그러나 資料蒐集이나 製作의 補助 展示場管理에 있어선 全會員이 動員되어 協助된 것입니다.

### 이젠 「프로」다

朴旻植 저는 처음엔 G·펜 글씨를 쓰는데 잘 되지않아 비싼 종이만 몇장 버리고 나니 그만 포기하려고 했읍니다만 申部長의 끊임없는 激勵(?)로 心血을 기울였던바 지금에 와서는 「프로」뻘칠 정도로 자신을 갖게 되었읍니다.



金敬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展示會 덕택에 이젠 굶어죽지 않게 되었읍니다. (웃음)

李東一 사실 理事長으로서 未安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읍니다. 市中에서 차트 한장 그리는데 3천원씩이나 하는데 協會財政 형편은 限度가 있고해서 하루 몇장을 그리건 겨우 2백원짜리 점심 한끼 사주고 말았으니… 나중에 製作委員들 열굴조차도 제대로 볼수 없었읍니다. (웃음)

金鍾壽 말이 났으니 말이지 사실 혼났

읍니다. 7,8월 三伏니위 후덥지근한 國會二別館 地下室에서 製作을 하자니 목은 말라 헉헉거리고 시원한 콜라 생각은 간절하는데도 忠淸道사나이 申部長은 우리 눈치만 볼뿐 그 느리고 무거운 궁둥이를 떼지 못하고 버티고만 앉아 있을때 아휴……(웃음)

司會 제작기간은 얼마나 걸렸읍니까.

申世華 資料蒐集을 3月부터 6月까지 4個月間해 가지고 9月定期國會 展示를 目標로 한참 무더운 7,8月 2個月동안에 製



작을 했습니다.

總製作數 49點의 完成과 35種의 速記補助器具準備 그리고 289種이 國內外 速記文獻이 蒐集된 것입니다.

楊澈在 이資料蒐集에는 隘路가 많았어요. <테마> <아이디어>는 좋은 것이 나왔는데 실제 資料를 얻는데는 不可能한 것이 많았었습니다.

蔡康熙 우선 發言速度같은 것만 해도 國會議員이나 國務委員은 資料가 되어있기 때문에 容易했는데 그外 社會著名人士의 경우는 일일이 찾아가서 速度를 재았는데 그분들이 一定한 장소에 있지 않을 경우 007처럼 東奔西走한때는 寒心했습니다.



지쳐 있으면서도 金鍾壽氏가 벌떡 일어나서는 이른바 <도둑바> 춤이 시작됩니다. 무언고하니 마침 國會事務處職員에 대한 打字강습이 이 地下室에서 實施됐는데 이 指導선생이신 미스·朴(?)이 타이프·키를 튕겼다가 다시 놓고 이렇게 반복시키는 打字初步 손연습을 시키는 場面인데 맨 마지막의 <딱!>은 몽둥이를 하나 들고 그 손연습을 律動的으로 하기 위해서 교탁을 딱 치는 소립니다. (웃음) 날씨는 더웁고 일의 능률은 안올라 신경질적인데 이 美貌의 아가씨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웃음)

金鍾壽 나도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틈엔가 朴晁植氏가 先手를 써

朴晁植 <速記하기 어려운 用語>나 <방언> 찾기같은 것은 그 방대한 國會速記錄을 전부 체크하고 심지어 俗談사전이나 방언사전을 전부 一讀했을 정도였습니다.

金善弼 차트에 첨부할 實例 사진을 蒐集하는데 一部會員은 자기집 앨범사진을 찾아다 提供해주는 協力派로 있었지만 一部會員은 史實을 證明하는 좋은 사진을 가지고 있음에도 非協助的이어서 애먹었습니다.

### 튀겼다 놓고 딱!

司會 製作過程에 喜悲같은 거……

金敬萬 「튀겼다 놓고 딱! 튀겼다 놓고 딱!」이렇게 리듬이 시작되면 作業에

그 <딱>아가씨와 나란이 점심을 먹고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웃음)

李東一 事業은 벌여놓고 일의 進度는 오르지 않아 겁이 더러 났었습니다만 차차 그 윤곽이 하나 하나 들어나기 시작하자 安堵와 自信이 생기더군요.

### 犯人은 파리었다.

朴晁植 하루종일 걸려 만들어 놓은 作品을 아직 먹물도 마르지 안했는데 반갑지 않은 訪問客이 건드려 망가질때는 꼭 내 子息을 죽인것 같아 며칠을 두고 화가 풀리지 안했습니다.

金敬萬 한번은 점심을 먹고 돌아와 보니 내가 써놓은 作品의 먹물이 이리 저리

點을 찍듯이 튕겨져 억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방해놓은 것 같이 작난을 해냈어요. 그래 화가 어떻게 머리끝까지 치밀든지 「어떤 X이 했느냐!」고 고래 고래 악을 써도 犯人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 그날은 도저히 더 일을 할수가 없어 시근덕 거리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을 하다말고 담배 한대를 피워물고 있노라니까 <파리>한 마리가 날라와 방금 써놓은 먹물에 앉아 입과 발로 쪼고 싹싹 비벼대드니 그 근방을 圓을 그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웃음)

그래 結局 犯人은 파리였고 이 파리에 게 한방 대개 먹은 거죠! (웃음)



를 가지고 表具商에 갔더니 表具商主人이 내 손을 째 쥐며 우리같이 同業하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웃음) 이때 비로소 내 솜씨가 <아마>를 넘었구나 하는 自負心을 갖게 됐습니다.

蔡康熙 저도 세번만에 完成했습니다. 처음엔 試作, 다음엔 近한달이나 걸려 거의 完成되어갔는데 規格이 맞지않다고 해서 다시 그리느라고 時日은 박두하고 죽을 苦生을 했습니다.

申世華 이때 다른 사람들은 한5일간 말도않고 再製作에 묵묵하고 있는 蔡兄의 눈치만 보느라고 진땀을 뺐습니다. 조금만 전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무겁고 지루한 순간이었습니다. (웃음)

## 同業하자고

司會 다음엔 이번 展示會에서 <히트>를 친 速記文字에 依한 大統領肖像畫에 대해서……

金鍾壽 세번만에 성공한 作品입니다. 처음엔 肖像畫의 <肖>字도 몰라 蔡兄하고 三角地에 있는 肖像畫店에 찾아갔으나 잘 가르쳐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肖像畫에 쓰는 特殊「붓」도 감추어버리고 보여주지 않더군요. (웃음) 하는수 없이 만들어져 있는 肖像畫를 몇번이고 鑑識한 結果 어떤 靈感같은 것이 떠올라 寫眞수정하는 <붓>을 利用 試作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세번만에 完成된 大統領肖像畫

蔡康熙 사실 그때 무언가 마구 때려붓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사람좋은 忠淸道사나이 申部長의 능글맞인 웃음때문에 결국 나도 웃고 말았습니다. (웃음)

아마 申部長의 능글맞인 웃음이 아니었다면 제 作品은 영원히 햇빛을 못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웃음)

## 藝術의 極致

金鍾壽 肖像畫덕택에 靑瓦臺出入을 자주 했고 朴正熙大統領께서 직접 내 作品을 點檢해 보시고 感嘆을 하셨다는 얘기를 姜尙郁代辯人을 통해 들었을때는 緊張이 싹 풀리면서 흐뭇했습니다.

李東一 作品展示裁可를 받기위해 靑瓦



臺와 議長公館에 갔을때 똑같이 展示가 끝나는대로 作品을 寄贈해 줄수 없느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議長公館에 作品을 가지고 갔을 때 李孝祥議長님께서 직접 보시고 이걸 어느 畫家가 그렸느냐 하길래 速記士가 速記文字로만 그린 것이라고 했더니 손뼉을 치시면서 「이것은 藝術中の 藝術의 極致라」하시며 이런 技法으로 歷代 國會議長 肖像畫를 그려 國會 會議場에 걸자고 하시더군요.

司會 이 肖像畫에는 點하나 線하나가 全部 速記文字로 되어있는데 각각 몇자나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金鍾壽 大統領肖像畫에는 69年度 70年



度分の 각종行事 大統領諭示와 年頭敎書·메시지·致辭등 13萬字가 담겨져 있습니다.

蔡康熙 國會議長肖像畫에는 38回부터 70回까지의 議長開會辭로서 6萬字가 들어가 있습니다.

司會 제일 그리기 어려웠던 부분은 어디었습니까?

金鍾壽 亦是 大統領의 特徵이라고 할수 있는 口部分과 눈동자部分이었읍니다.

司會 다음에 豫備展示를 거쳐 本展示에 들어갔는데 그 展示過程에 대해 말씀해 주실가요.

申世華 마침 金善弼氏가 設計에도 經驗이 있어 展示場內의 立體圖·平面圖를 그려 일일이 길이, 높이, 角을 測定해서 作品配列을 했습니다. 또한 國會管理課의 協助로 電氣·木工의 도움을 받았고 國會 速記士養成所 學生들의 도움도 컸읍니다.

金敬萬 9月6日 일요일인데도 楊澈在氏의 約婚女(現婦人)가 오셔서 여러가지로 도와주신것도 빼놓을 수 없지요.

金善弼 議事堂復道에 展示될 兩壁을 測量하고 있는데 國會特別警備隊主任이 뛰어와 가지고 다음날 열릴 本會議를 위한 警備가 森嚴한데 무슨 時限爆彈이라도 架設하는 줄 알고 이리 저리 檢索當할뻔 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읍니다. (웃음)

## 두번째의 榮光

李東一 이번 展示會日程은 잘 擇했다고 생각합니다. 院內展示가 열린 9月7日 부터 10日까지 이상하게 本會議가 열려서 많은 國會議員과 國務委員·言論界人士가 參觀하게 됐고 院外展示會도 10月1日 國軍의 날 行事때문에 수많은 人波가 우리 展示會를 參觀했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歷史的인 事實은 李議長께서 첫날 tape cutting을 해주시고 議員휴게실에 잠깐 앉아 展示物을 鑑想하셨는데 李議長님이 議員휴게실에 나오시기는 처음 登院했을때 한번하고 이번이 두번째라고 新聞記者와 TV·카메라맨들이 깜짝놀란 사실입니다.

楊澈在 新聞記者들은 좋은 資料들이라고 모두 熱心히 베껴가더군요.

朴旻植 展示物中 무엇보다도 議員들의

발걸을 넘치게 한것은 肖像畫와 發言速度 이더군요. 누구나 한결같이 自己의 發言速度가 어느정도인가 自己이름을 찾고 있었읍니다.

### 金一封을……

金敬萬 金在光議員같은 이는 이러한 좋은 資料를 며칠간의 展示會로 끝내지 말고 國會事務處豫算을 獲得해서라도 單行本冊子로 만들라는 고무적인 말씀까지도 있었죠.

金鍾壽 李丁錫議員은 製作者인 우리도 發見못한 <미스>를 發見해 내더군요. 「速記하기 어려운 경우」란 作品內容中 <嬌兎死而면 走狗烹이라>라는 用語가 있는데 그 첫 字가 <嬌>가 아니라 <狡>字라고 바로 잡아준 일까지 있었읍니다.

蔡康熙 陸寅修議員은 展示된 略字凡例를 보고 저렇게 略字를 가르쳐주어버리면 速記士밥벌이는 어떻게 할려구하느냐고 웃으며 말씀으로 場內를 웃기시더군요.

李東一 특히 文公委員會 議員들이 文公委員會에서 通過된 國庫補助金에 의한 展示會라는데에 깊은 關心과 好感을 가지고 參觀해 주셨읍니다.

楊澈在 李于憲위원은 即席에서 金一封을 내놓으시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경위를 說明드리느라 진담 뺏어요. (웃음)

金善弼 金三祥議員은 展示物을 仔細히 보다가신 뒤에 다른 議員들을 데리고 와 直接 일일이 說明하면서 觀覽시킨 일도 있었읍니다.

申世華 李萬燮議員과 金守漢議員같은 이는 <發言速度>보다도 各議員의 <發言回數>를 展示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金柄淳議員은 그분 發言速度가 尹致暎議員 다음인 두번째나 되게 그렇게 빠르냐구 꺽꺽 웃더군요.

金敬萬 金大中議員은 速記文獻만 오랫동안 유심히 보고 가셨읍니다.

### 넥타이를 읽으라

李東一 丁一權國務總理는 肖像畫를 유심히 보시고 옆에서 說明을 하던 徐壹敎總務處長官은 大統領肖像畫의 넥타이部分을 읽으라고 해서 金鍾壽氏가 더듬거리며 읽어내니까 丁總理의 그 溫和한 웃음이 오랫동안 가시지 않은채 肖像畫를 지켜보고 계셨읍니다.

金鍾壽 丁來赫國防長官도 李議長肖像畫의 넥타이部分을 읽으라고 해서 蔡康熙氏가 順風에 돛단듯 찰찰 읽어내니까 감탄하시더군요.

李東一 또 申範植文公部長官은 今年協會補助金과 來年補助金申請額이 얼마냐고 細細하게 묻고 好意的인 關心을 보여주셨읍니다. 또한 朴環遠內務長官도 財政的인 뒷받침을 해주겠다고 적극 協助의 뜻을 表해주셨읍니다.

### 速記萬歲

申世華 院外展示때는 어떤 老人이 外國人이름을 한글로 쓰는 主體性을 갖지 않고 英文으로 썼다고 호통을 쳐왔고 尹鎮斗氏라고 하는 老人도 옛날 자기도 中根式速記를 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速記文獻을 기증해 주겠다고 約束하더니 정말 지금 第1次분으로 9권의 기증을 받았읍니다.

또한 早稻田式을 배운 일이 있다는 어떤 紳士는 우리도 이제는 後進國이 아니라면서 芳名錄에 <大韓民國速記萬歲>라고



크게 써 놓고 간 분도 있었읍니다.

金敬萬 速記即席示範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婦人이 와서 聖經의〈주기도문〉을 4百字速으로 읽어냈읍니다. 그레 쓴 다음에 읽어주었더니 그 종이를 가지고 갔다가 한 10分後에 다시 와서 그 종이를 내놓고 다시 읽으라는 것입니니다. (웃음)

朴旻植 院外展示때도 申範植文公部長官이 또 오셨읍니다. 아주 깊은 關心을 보였읍니다.

李東一 이번 院外展示會場에 같은 會

員인 浦項綜合製鐵의 李起同氏와 韓國銀行의 鄭允模氏 그리고 東邦速記學院에서 花盆花籠을 보내주어 會場을 더욱 빛나게 해준 點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國會事務處를 비롯 文化公報部 朝鮮日報社의 적극적인 協助에 다시 감사를 드리며 이 展示作品製作에 온 心血을 기울여 주신 製作委員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司 會 長時間동안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 芳 名 錄

이번 速記展示會에는 많은 人士들이 參觀 激勵해 주신바 이하 名單은 우리나라의 知名人士로써 芳名錄에서 拔萃한것이다.

#### 國會議員

- 李孝祥 議長
- 李相武 議員
- 金在淳 議員
- 閔丙權 議員
- 李鍾根 議員
- 吉典植 議員
- 高在秘 議員
- 孔正植 議員
- 金東煥 議員
- 金斗鉉 議員
- 金三祥 議員
- 金聲喆 議員
- 金守漢 議員
- 金永福 議員
- 金宇榮 議員
- 金裕璋 議員
- 金應柱 議員
- 金在光 議員

- 金在紹 議員
- 金正烈 議員
- 金昌權 議員
- 金昌郁 議員
- 金天洙 議員
- 朴柱炫 議員
- 朴浚圭 議員
- 朴漢相 議員
- 徐相潁 議員
- 薛科廈 議員
- 成樂絃 議員
- 安東潛 議員
- 吳元善 議員
- 吳學鎭 議員
- 柳光鉉 議員
- 尹在明 議員
- 尹天柱 議員
- 李南俊 議員
- 李東寧 議員

#### 李敏雨 議員

- 李白日 議員
- 李炳主 議員
- 李承春 議員
- 李源萬 議員
- 李元燁 議員
- 李宇憲 議員
- 李丁錫 議員
- 李珍鎔 議員
- 李賢宰 議員
- 崔翊圭 議員
- 崔熙松 議員

#### 國 務 委 員

- 丁一權 總理
- 崔圭夏 長官
- 朴璟遠 長官
- 丁來赫 長官
- 申範植 長官
- 金永善 長官
- 李炳玉 長官

## 編輯後記

- 불빛이 따스하다. 어두운 밤하늘에 손을 들면 만져질것만 같은 體溫. 바람찬 거리에서 어깨를 나란히 주고 밧아온 정다운 對話를 새겨온 나날,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고 또 내일을 約束하는 한 時刻 한 時刻을 億劫으로 쌓아 올리며 庚戌年도 이제 저물어간다. 그동안 우리協會의 피어린 발자국에도 精誠의 收穫이 있었음을 自負해 본다.
- 이제 7代國會의 마지막 定期國會도 그 幕을 내렸다. 그동안 連日 계속되는 國政監査와 豫算審議 各種法案審議때문에 疲勞해진 心身을 休會期間을 通해 서서히 調理해야 되겠다.
- 이번號에는 <國政監査>와 <速記展示會> 特輯을 실어 監査隨行速記士들의 公開狀을 펼쳐 보았으며 또한 우리의 技量을 마음껏 자랑해 보았다. 한가지 紙面관계로 展示會 畫報를 더 많이 실지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지만 後日에 기대해 본다.
- 하늬바람이 매서울수록 봄의 숨결이 가빠진다. 겨울이면 봄도 멀지 않으리라. 얼어붙은 겨울의 노래속에 봄의 소리가 해살친것만 같다.  
申亥年 새해에는 會員여러분의 보다 더 榮光과 多福있기를 빈다. (源)

季刊 速記界

<第4號>

1970年 12月 30日 發 行

發行人 崔 致 煥  
編輯人 梁 源 龍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서울特別市 中區 太平路 1街 60-1

(75) 6987 · 6940



(年)(新)(亥)(申)(賀)(謹)

社團  
法人

# 大韓速記協會

名譽會長	李	孝	祥	(國 會 議 長)
會 長	崔	致	煥	(國 會 議 員)
副會長	張	基	泰	李 東 根
顧問	李	鎬	賑	(國 會 事 務 次 長)
"	任	哲	淳	(國 會 專 門 委 員)
"	河	在	鳩	(國 會 議 事 局 長)
"	權	孝	燮	(國 會 委 員 局 長)
"	吉	基	祥	(國 會 總 務 局 長)
"	劉	龍	珪	(國 會 速 記 課 長)
指導委員	姜	駿	遠	金 星 漢
理事長	李	東	一	
總務部長	楊	澈	在	
宣傳部長	梁	源	龍	
事業部長	申	世	華	
研究員	李	康	賢	
資格審查員	韓	鍾	烈	
理事	韓 奉 永 · 金 永 春 · 宋 博 文 · 黃 寅 河 · 韓 東 春			
監事	金 仁 寧 · 高 在 欽			